

## “낙태 당하는 태아, 죽음의 고통 겪어... 교회가 생명운동을”

홍순철 교수, ‘예수학교’ 2기 첫날인 12일 강연

예수말씀연구소(소장 소기전 박사)가 주최하는 예수학교 2기가 ‘니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라는 주제로 12일부터 6주 동안 열린다. 12일 예수학교 2기 강연 첫 째날 ‘태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성애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강연회에서 홍순철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는 ‘태아 생명 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홍 교수는 “최근 낙태죄 입법공백으로 최근엔 2천만 원을 받고 임신 36주 낙태를 시행하는 산부인과도 있다는 보도를 봤다.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 낙태법을 만들어야 했으나 결국 좌초돼 낙태법 입법공백으로 인해 임신 36주 낙태에도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 하에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냈다. 이는 태아를 여성의 신체 일부로 보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울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한 시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낙태는 속하지 않는다며 낙태권을 허용한 1972년 로데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로데웨이드 판결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태아 6천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과거로 회귀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임신 5-6주는 심장, 팔 다리 등 몸의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다. 임신 10주부터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발달한다. 임신 24주 이상 조산아도 현대 의학기술로 100% 생존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태아가 통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쉽게 낙태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낙태를 당하는 태아는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세인 마이클 헤일리라는 무노아가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임신 13주경 세인 마이클 헤일리가 출산 이후 죽음을 구원할 의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결정했다”며 “세인 마이클 헤일리는 출생 이후 부모와 4시간 밖에 살지 못했다. 하지만 세인의 어머니는 ‘아들아, 모든 생명이 가치있으며 보호받고 존경받아야 함을 증명했다’라며 아들에게 성숙한 이별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세계 각국은 40세 여성의 예를 전하고 있다. 그녀는 30세에 결혼해 10년간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거대 자궁근종이 생긴 그녀에게 의사는 자궁적출을 권유했다. 그런데 부인과 종양 전문의가 그녀에게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 하루 전날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우측 끝 태아시방동이 감지됐다’며 내게 말했다”며 “그리고 그



홍순철 교수 ©노형구 기자

부모는 저와의 상담 끝에 낙태 대신 임신을 결정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다. 자궁 혹은 태아가 자랄 자리를 내어줬고, 결국 부모는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40세 여성과 남편은 임신을 시도한 지난 10년 동안 우울했다. 그러나 산모는 출산 이후 아기의 웃음을 보고 우울증을 치유 받았다”며 “우리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증명했다”라며 아들에게 성숙한 이별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인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벅속의 아이는 출산 과정에서 부모와 동등한 주인공이자 주체”라고 했다.

홍 교수는 “교회는 태아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낙태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해 이뤄진다. 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자들은 그런 이들에게 낙태보다 여러 도움을 주며 출산을 권유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 “목회자들은 낙태의 위험성을 다루는 설교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60% 이상은 한 번이라도 낙태를 경험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도록 강단에서 설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낙태법 입법공백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속히 대체입법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김태기 목사(충북 선인교회)는 “성인교회는 2018년 1월 11명으로 시작해 당시 다음세대는 50%였다. 다음세대 사역을 위해 ▲세대통합예배 ▲다음세대 찬양팀 인도 ▲예배 이후 소그룹 설교 말씀 나눔

▲방향 동안 다음세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예배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특별사색 기도회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노방전도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세대들에게 1만 장 성경읽기, 1천 시간 기도를 독려하고 동시에 흥미를 유발하고자 독서 캠프, 보드게임 놀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 활성화를 위해 한 영혼에게 진심으로 사랑하 집중하자 ▲교회가 놀이터가 되게 하자 ▲다음세대들 기도와 말씀의 용사로 세우자 ▲가정예배를 활성화하자 ▲다음세대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앞서 김성이 목사(전 보전복지부 장관)는 ‘만남’(1장 5-7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비혼주의, 1인 가구 등 여러 요건 때문 가정의 따뜻함이 상실된 지 오래이며, 가정의 붕괴는 저출산 등 생명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감사하고 만족하는 영혼의 기쁨과 자긍심을 주신다. 우리가 실족 죄를 짓고 실수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뒤에도 예수님의 용서를 자신의 주관으로 왜곡해 결국 죄책감에 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의 용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위대한 사도가 됐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실수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좌담회 및 기도회에서 소기전 소장(예수말씀연구소)은 “천국엔 낙태된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잔치는 천국이다. 이는 이 땅의 낙태된 아이들까지 포함한 잔치다. 태아 생명 살리기에 눈을 뜰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플라톤의 향연에서 어린아이를 성욕 노리개로 여기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삶의 주체로 대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임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사회 각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예수학교가 한국교회를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8년째 사문화된 北인권법, 재단이사 추천 강제 등 전면 개정해야”

사단법인 북한인권·한변 등 12일 기자회견 갖고 촉구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한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8년 전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재단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하여 법은 8년째 사문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에 의존하는 등 문제

가 있었지만 2016년 3월 2일 11년 만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그 정상적인 시행만 촉구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북한은 ‘남한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이고, 핵 공격 대상인 제1의 주적’이라면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교류기구를 전면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문화된 현행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실효성 있게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

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① 재단이사 추천 강제: 법 사문화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규정 제12조를 개정하여,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른 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도록 규정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6조 참조).

② 법 적용범위 확대: 북한 주민의 정의 규정을 고쳐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 등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다.

③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현행 법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관중되어

있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북한 내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여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④ 북한인권 교육 필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통일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법에 초중등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증진교육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산화: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현행 규정처럼 단순히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향후 기소를 전제로 검사 등 수사전문의가 체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단법인 북한인권

계적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법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명칭과 역할을 명시하여 북한 정권에 반인도범죄의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⑥ 북한인권 문제의 주주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로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추진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등 관련기관의 위상이나 구성 방법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진영 기자

럭셔리 라이프의 새로운 미래  
**리버레이크 송파** 지금 강남아파트 10년 절호의 기회!!

## 반값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우리집!

4천 500만원으로 잠실을 누리다!  
석촌역 10초!!

중도금 무이자 송파 랜드마크  
청약 통장 35층 상향!

**송파 5억 원대~**  
**8·9호선 더블역세권! 황금입지!**

**리버레이크 송파 프리미엄 7가지**

- ☑ 석촌역 10초, 장성역 도보역세권
- ☑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생활인프라
- ☑ 장성종합운동장, MICE복합개발
- ☑ 현대 GBC, 강남권 송파 미래가치 핵심입지
- ☑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생활환경
- ☑ 한강조망, 신강남의 중심
- ☑ 주상복합 고품격 커뮤니티

40㎡ · 55㎡ 아파트 | 총 380세대  
전화상담 후 광고지 지참 방문시 **홍삼세트 증정**

문의 **02)532-0062**



#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자들 시선, 8년 전과는 다르다

친기독교 정책들에 열광했지만 점차 진정성 의심  
‘그래도 바이든 보다는...’ 지지 계속될 듯  
“트럼프 집권, 대한민국 안보에 악영향”  
인식 커지며 국내 교계에선 지지도 약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과거 그를 지지했던 현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선 그런 변화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던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현지 복음주의 교계의 지지는 상당했다. 그것이 대선에서 그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에 염증을 느낀 복음주의계가 미국의 전통 기독교 가치의 편을 드는 트럼프에게 열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러 면에서 보수적 정책을 폈다.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적 연방대법관을 임명했고, 이스라엘을 지지했으며, 동성애 등 소위 LGBT 문제에 있어서도 우호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주요 참모들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들로 임명했다. 특히 그가 재임 시절 백악관 인근 성요한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열광을 대변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4년 전 2020년 대선에서도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이 그에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 이런 분위기는 큰 흐름에서 어지고 있다.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의 대선 승리를 위해 본격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 한 매체에 따르면 기독교계 보수 단체인 ‘신앙과 자유(Faith & Freedom)’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 행사 운동 등에 상당한 돈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 단체는 경합주를 중심으로 교회들에 3천만 개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또 최신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약 4분의 3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현지 복음주의계의 트럼프 전 지지는 그의 집권 당시 때보다는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독교에 우호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의 기독교 관련 수사 와 행보는 단지 ‘표’를 위한 정치적 행동일 뿐 진정성이 없다는 것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서 그의 정책이 당장 기독교 친화



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그를 위해 기도하던 모습 ©백악관

적일 수는 있어도, 결국 기독교 가치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자주 지목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nationalism)인데, 이것을 기독교 가치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종교 보다는 정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하상용 서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견해도 있다.

또한 미국 복음주의의 신학자로 유명한 웨인 그루덴(Wayne A. Grudem) 교수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경선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재임 시절 그의 행정부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선 공

화당이 다른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가 되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은 만큼 그 반대자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루덴 교수는 “만약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지금 (공화당 경선에서) 사임한다면 칭찬할 만큼 겸손하게 개인적인 야망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보다 선출 가능한 선거를 위해 물러난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선출가능성이 있는 공화당원은 대통령이 되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2021년에 시작한 정책을 공고히 하는 데 향후 8년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트럼프 지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왼쪽)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을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레함 목사는 지난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 ©SNS

지는 인물에 대한 선호라기보다 그 정책 때문인데, 미국 사회에서 마치 ‘영웅’이 등장한 것처럼 트럼프라는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수록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복음주의자들이, 보다 ‘리버럴(liberal)하고 친LGBT 행보를 보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더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도 상당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보다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동맹과 과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냈던 ‘기독교 국가’로서 미국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국내 복음주의들도 미국의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지난 2016년 대선과 이후 대통령

재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로 지지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에 더해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 나아가 세계선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안보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자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했던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세계선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영 기자

## 尹, 종교계와 오찬 “의료개혁 등에 힘 모아달라”

12일 청와대 상춘재서 간담회... 장종현·김장한 목사 등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종교계와 가진 세 번째 오찬 간담회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응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이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영하 회장 등 1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의 조건을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종교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 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배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 김진영 기자

## NCKK 인권센터, 이동환 출교 규탄 “철회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인권센터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성소수자와 그 이웃들에 대한 혐오가 ‘출교’라는 조유의 사태로 이어졌다”며 “교회가 신앙의 길을 잃고 복음의 정신을 훼손한 참담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성경의 진리를 모독하는 일이며, 신앙인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삶을 살라 하셨는데 땅 끝은 커녕 곁에 있는 이웃

마저 밀어내니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실천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웃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환대목회로 펼쳐냈다. 벌이 아니라 상을 받을 일이다. 이런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판결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을 철회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울산항만공사**  
ULSAN PORT AUTHORITY

U L S A N P O R T

U P

## 울산항 UP, 대한민국 경제를 키웁니다

- ✓ 국내 1위 · 세계 4위 동북아 최대 에너지 허브 항만
- ✓ 정유 · 석유화학 · 조선 · 자동차 산업발전 선도 항만
- ✓ 아시아 지역 컨테이너 수출입 종합 서비스 제공 항만



**울산항 Connect UP**  
https://www.upa.or.kr



# 한국 감독이 제작한 ‘룻기’, 촬영 마치고 후반 작업 진행 중

[인터뷰] ‘룻기 원뉴맨’ 영화감독 최혁 선교사

룻기는 효부 이야기?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중요한 메시지 담고 있어



룻기 원뉴맨 영화감독 최혁 선교사 ©토마스 멩 기자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소셜 네트워크나 영상을 통한 복음 전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과 영상 이 삶의 일부가 된 시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고,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한다.

11년 동안 순복음교회 주일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이후 뮤지컬과 다양한 공연의 감독으로 활동했던 최혁 선교사는 뮤지컬 감독으로서의 경험과 대만 선교사로의 목회의 경험을 함께 녹여 영화 제작에 도전한다.

주인집 대형 마루에 주일 아침이면 틀어져 있던 TV에서 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주일예배, 그 중에서도 합창제 지휘봉을 휘두르는 지휘자의 뒷모습은 어린 최혁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일 아침이면, 그 TV앞에 서서 자신이 그 지휘자를 따라 지휘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그의 어머니는 참치해하며 끌어 내렸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꿈은 더욱 소원해졌지만,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은 어릴 적 그가 꿈 꿔던 그 자리, 지휘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2013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성가대 지휘자 역임(11년), 조용기 목사, 김성희 총장 해외 성회 음악담당 디렉터, 국립합창단 편곡, 다수의 뮤지컬, 콘서트 총감독, 한세대, 서울신학대 교수, 음악 사역에 이보다 더 화려한 경력이 있을까?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최혁 선교사는 2013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훌쩍 대만 선교사라는 전혀 다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키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셨다.

하나는 룻기라는 성경이야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키워드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방향이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0년 1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대만 선교사가 된 후에도 음악 사역을 놓치지 않았다. 2020년까지 2015년 뮤지컬 희생(Musical sacrifice), 2016년 뮤지컬 약속의 땅(Musical Promise Land), 2017년 2018년 대만 뮤지컬 사명(Musical Mission), 2019년 기독교100주년기념관

(생명의 도장) 제작 및 총감독을 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의 모든 사역이 막혔다.

그러나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새벽에 기도하던 영화에 대한 마음이 들었다. 만들고 있는 영화들도 접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감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일 새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날, 예배를 마치고 한 대만 성도가 그를 찾아와 그분의 전제선과 같은 돈을 건네셨다. '하나님께서 최혁 선교사가 할 일이 있다며, 그에게 드라라고 하셨다는 것.'

"영화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증거를 보여 달라고 기도했다. 저희 교회의 가난한 과부의 돈을 가져다가 제 앞에 갖다 놓게 하신 것이다. 3천 5백 달러 정도의 돈이었다. 그 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없지만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 코로나로 경기가 힘들 때, 수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게 영화 <룻기> 제작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 룻기일까? 룻기가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가? 지난 주 금요일, 영화 룻기 제작 설명회를 위해 LA를 찾은 최혁 선교사를 만나 룻기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들었다.

### -룻기로 정한 이유?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한 몸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룻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예표가 들어가 있는데 룻기의 전후에 대한 사상을 이해하려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보아스의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성에 들어갈 때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라는 여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리고성을 점령할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여리성의 유일한 생존자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다. 그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삼천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와 가



룻기 원뉴맨 영화감독 최혁 선교사 ©토마스 멩 기자

족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한다. 두 명의 정탐꾼이 이런 말을 한다. '당신 창문에 빨간 줄을 걸어 두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과 빨간 색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 유월절이다. 제 해석이 억지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유월절 이틀 이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던 것처럼, 라합의 가정의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이 죽는 상황에서 보존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살몬이란 사람이 있다.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이다. 보아스를 알아야, 그 혈통을 알아야 룻기가 해석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이 있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다.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된 이유다.

신명기 4장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길게 살지 못하고 전멸된다. 베들레헴 땅이 황폐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이방 땅의 여리인과 결혼한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죽는다.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 보낸다. 두 며느리를 집으로 보낼 때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 하며 떠나지 않는다.

이후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룻은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낳는다. 보아스를 만난다. 그때 계대 결혼이 있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었다. 그가 첫 번째 기업 무를 자였다. 기업을 문다는 이야기는 땅을 사서 자손이 이어지게 주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무를 자에게 한 가지를 추가한다. 이방 여인 룻에서 그 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첫 번째 기업 무를 자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며 포기한다. 이것을 보고 첫 번째 기업 무를 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다.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내 친척의 기업을 무를 수는 있지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무를 자는 철저히 율법을 지킨 자이다.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이다. 그런데 보아스는 반대로 룻을 아내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보아스는 율법을 어겼고 첫 번째 기업 무를 자는 율법을 지켰다.

왜 보아스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을까? 자기 어머니가 이방여인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여리고성에서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해서 너를 낳았다.'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율법보다,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면서까지 이방여인과 결혼했다.

신약에서는,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예표되었다고 한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었다.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도 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초림하는 통로가 된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사람(one new man)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두 존재가 한 몸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 룻기의 모든 얘기를 끝내다가 에베소서 교화에 편지하고 있다. 에베소서 2:14절이 있어서 편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리를 담은 책이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을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간 적이 어떤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이 독립된다. 그때까지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인 집단이 기독교이다. 유대인을 가장 압박하고 죽인 집단이 교회였다. 바울이 한 몸이 될 거라는 예언과 전혀 다른 역사였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독교에서 돕기 시작했다. 룻기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질문할 수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룰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세상의 종교에는 경전이 있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 성경 안에는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예언은 성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지 확인하려면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많은 불신자들에게 '의심하라.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예언의 90% 이상이 성취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었는지 조목 조목 확인해 보라.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성경은 예언이기 때문이다. 마 24장은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 32-33절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2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진, 전염병을 이

야기 하다가 갑자기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신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즉, 마지막 때의 징조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룻기를 만들게 된 배경을 한 달음에 쏟아 놓고는, 이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LA를 찾아 온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룻기를 잘 모른다'며, 효부의 이야기로 잘못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최 선교사에 따르면,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룻기이다.

그는 룻기를 만든 계기를 설명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오해에 대해 일축했다.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복음을 못 들었는데 무슨 지구 반대편의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합니까'라는 반문이다. 그럼 제가 묻는다. '바울이 이웃 전도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 전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했다면 우리는 바울을 모른다. 개인주의 영성, 기도원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만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헬라철학이 흡수되어서 나온 것이다. 어느날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영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게 복음인데 그런 얘기를 잘 안한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출신이고 조용기 목사님, 김성희 총장 해외 성회 따라다녔지만 신학적 방향은 다르다.' 최 선교사는, 춘향전을 사당에서 가져가서 '열녀' 가치관을 빼고 엉뚱하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춘향전이 아니듯, 룻기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자신이 룻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면 99%가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룻기가 왜 들어가 있어?'라고 묻는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들이 거기 있다. 그런데 죽 가다가 난데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 나온다. 재미 있는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관계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도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다. 이 영화가 메시지가 잘 전달되면 과급력이 있을 것이다. 룻기에 대한 설교가 바뀔 것이다."

-영화 작업은 어느 단계인가?  
2020년 1월 1일 시작된 영화 제작은 현재 촬영은 거의 다 마쳤으며 편집과 CG 작업, 후반 작업이 남아 있다. 개봉은 내년 60개국에서 할 예정이다.

토마스 멩 기자

## 존중과 배려

기쁨 없는 직장의 첫걸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은 아니신가요?**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는 일도 못하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네~

김대리! 오늘은 3차까지 무조건 가는거야!

오늘은 막내들이 장기자랑 하는 거지?

김대리, 커피 안 타고 뭐해?

고용노동부



# “기독교학자, 진리 탐구 및 제자 기르는 일에 힘써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제4차 기독교적 학교교육 포럼서 유재봉·김한나 교수 발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이사장 이장호)가 최근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에서 '나, 교육학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제4차 기독교적 학교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유재봉 교수(성균관대)가 '기독교적 교육학의 연구: 자전적 회고와 과제' ▲김한나 교수(총신대)가 '학교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신뢰와 존중(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교육 3주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기독교학자, 학문·교육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드러내고, 가르침으로써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유재봉 교수는 "세계의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역설했던 카이퍼(A. Kuyper)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있다"며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각 개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감당할 공동체를 주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학자는 다른 어떤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도록 소명을 받은 자"라며 "기독교학자들은

자신이 부름을 받은 학문의 최전선에서 기독교적 진리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했다.

또 "제자 삼는 일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 또는 '지상명령'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이다.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대위임령은 흔히 '천 교명령'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명령'이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이면서 교육에 헌신했던 뉴먼은 교회의 교육적 책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례는 주면서 교육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보았다"며 "이 대위임령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8절 하반 절에 나타나 있는 첫째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요 통치자시라는 점을, 19절과 20절 전반 절의 둘째 부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제4차 기독교적 학교교육 포럼 진행 사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은 대위임령을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20절 하반 절의 셋째 부분은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너희는"으로 시작되는 대위임령 문장의 주동사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삼아라(maqhteu, sate, make disciples)'이다. 즉 대위임령의 핵심내용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동사처럼 번역되어 있는 '가서',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은 모두 분사로서 주동사인 '제자 삼는 것'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위임령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인 열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맥상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자 삼는 일

의 본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삼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학자는 각자가 부름 받은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진리를 탐구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제자를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학교교육 연구를 위한 과제 세 가지

유 교수는 "먼저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육의 이론이나 주장 속에 들어있는 논리적 가정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일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 교육학과 교육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치우쳐 있으며, 기독교학자나 교육자들도 오늘날 인기 있거나 최근의 교육사상이나 방법, 혹은 교육정책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우리나라 교육에서 한때 유행하였던 포스트모더니즘 교육론이나 구성주의 교육의 주장 속에 들어있는 논리적 가정을 드러내어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은 교육(학)자들이 세속적 교육의 현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둘째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기존의 교육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일에는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거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교육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일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이론이나 실재를 재구성하는 일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로 교육 실천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론화하거나 검토하는 일"이라며 "이 일은 앞의 두 과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교육이론이나 사상보다는 교육현장과 교육 실천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

된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적 학교교육의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학문은 그것이 기독교적 학문인 이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성령의 인도를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혼자서는 해내기 힘들며, 뜻을 같이하는 좋은 공동체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김한나 교수는 "교육이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잠재능력,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능력, 그리고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지적 수월성을 성취시켜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또한, 교육의 본질을 말한다면 인간의 인지와 정의적 특성이 바람직한 변화로 되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은 본질적 기능(그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이 있고, 비본질적 기능(교육 외적 실현을 위한 수단적 기능)으로서 수행한다"며 "인간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자기결정 및 자기통제의 원리에 따라 인격이 형성되는 동시에 자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교육이란 인간의 인지와 정의적 특성이 바람직한 변화로 되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길러 주는 것으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의 핵심이 인격 완성과 자아실현을 의미한다"고 했다.

더불어 "결국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되도록 하는 작용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의 가능성(educability)을 기초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김 교수는 "잡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가치관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훈육하며 지도해나가는 교회, 그리스도인, 교사,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에서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통한 회복과 지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과 제자,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건강한 관계 맺음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처럼 본받고 싶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며 "롤 모델 삼고 싶은 크리스천, 멘토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크리스천이 되어 무너지는 교육 현장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 존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리스도인 학부모의 역할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적 가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가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인공지능 등의 첨단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한나 교수는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며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이 진행되는 공간에서 학생과 학생을 연결하고,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연결한다. 학생과 부모를 연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사도 학생을 통해 배우면서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초·중·고교의 학생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장 과정 속에 있다"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서로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돌보고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사들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사들과 충분히 만나고 갖게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는 아이들이 인간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사회화의 공간으로 인간의 존재 이유를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그 과정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 선배 학자들과의 학문 후속세대의 모임이 진행됐다. 정지동 기자

# RIMOWA



NO ONE BUILDS A LEGACY BY STANDING STILL



## 기독교학술원, 2024 영성신학 수사과정 1학기 개강 및 17기 입학식 진행

기독교학술원, 2024 영성신학 수사과정 1학기 개강 및 17기 입학식이 지난 7일 은누리교회 양재동 캠퍼스 믿음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오성중 교무부장의 인도로, 김영한 원장의 권설, 박봉규 사무총장의 대표기도, 오성중 교무부장의 집사기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주제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한 원장은 권설에서 기독교 학술원 수사과정은 목회자들의 영성 공동체로서 교부들의 영성을 배우며, 교부들의 삶의 청빈과 하나님과 연합하고자하는 삶을 위하여 배움과 노동과 기도와 섬김의 영성 실천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영성은 최고의 경지는 삼층 천에 들어가는 체임이기보다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겸허를 체화(體化)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영성 완성의 차원이란 겸손, 경허, 비움이라고 하였다"며 "자아의 없애기, 존 오웬은 내 속의 죄 죽이기(mortification)라고 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2024 영성신학 수사과정 1학기 개강 및 17기 입학식 기념 사진. ©기독교학술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는 것(vivification)이다.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자. 졸업보다는 매 수련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복음의 도,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 영생의 도를 깨우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는 권태 목사(1기, 5대 섬김이, 새 마음 교회 담임)가 기독교 학술원 약사(1982년 창립 올해 42주년) 봉독, 박연수 목사(김천상남교회)이 중수 목사·성종중 사모(빛과 생명교회) 세 분의 신임서 선

서, 오성중 교무부장의 학사 안내, 김영한 원장의 축도 순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수사과정에는 다양한 교수진들의 강의가 예정돼 있으며, 월례 포럼 강의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1학기 수사과정은 격주로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한영태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 배본철 박사(전 성결대 신대원장),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 오성중 박사(전 칼빈대신대원장), 유창무 목사(예장 합동 인도선교사) 등이 강연한다.

강연은 △오는 21일에는 한영태 박사가 '웨슬리의 영성(회심과 성화)' △4월 4일에는 배본철 박사가 '축사 영성' △18일에는 정일웅 박사가 '코메니우스 영성(칭의와 성화 통합)' △5월 2일에는 오성중 박사가 '신약 강해(영성신학적 접근)' △16일에는 유창무 목사가 '목회와 영성 기도' △5월 30일 중강에는 김영한 원장이 '이레네우스의 영성(III)'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정지동 기자



# 장신대, 큰은혜교회와 '순교자 손양원 목사 석좌교수 약정식' 개최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는 큰은혜교회(담임 이규호 목사)와 '순교자 손양원 목사 석좌교수 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장신대 김운용 총장과 신형섭 대외협력처장, 신옥수 대학원장, 이장호 경건교육처장, 김은혜 학술연구처장이 참석했다. 큰은혜교회에선 이규호 담임목사를 비롯해 장로·부목사 및 성도 50여명이 참석했다. 장신대는 이날 큰은혜교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순교자 손양원 목사 석좌교수기금을 마련하고, 장신대 조직신학 김도훈 교수를 선정해 지

원하기로 했다.

이후 기역과 증언의 예배(손양원)로 드려진 본 예배는 교수 이치만 목사의 인도로 큰은혜교회 장두욱 장로의 기도와 큰은혜교회 카리스파르빗 찬양대의 '거룩한 성' 찬양, 백하운 학생(장신대 기독교 교육 3)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규호 목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롬 14:7-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큰은혜교회 일행은 행사 이후 장신대 교내 여학생기숙사 뒤편 녹지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산돌둘레길 및 기념비를 방문했다. 사람의 시도 산돌 손양원 목사의

순교정신을 기려 조성된 산돌둘레길에는 2015년 개교 115주년을 맞아 건립된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장신대는 "이 기념비는 2m 높이로 포천석을 사용해 한 톨의 씨앗이 고난을 받아 깎이고 찌그러진 모습을 사람의 원자탄의 변형된 형상을 하고 있다"며 "새벽 경건회 이후 학생들이 산돌둘레길을 걸으며 기념비 앞에서 묵상과 기도를 하고 순교신앙 정신 계승에 힘쓰고 있음을 나누며 큰은혜교회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동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산돌둘레길 및 기념비 방문을 기념하며. ©장신대

## 감신대, 2024 봄학기 영성집회 진행

###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초청

감리교신학대학교 2024년 봄학기 영성집회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만나교회 김병삼 담임목사를 초청으로 웨슬리 채플에서 진행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첫날인 3월 6일에는 만나교회 워십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나요한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고, 김병삼 목사가 '은유한 사람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진중한 고찰을 전하며, 마무리되었다.

둘째 날인 3월 7일 예배는 워십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임원진 학생이 기도를 이끌었다. 이어 김병삼 목사는 '예수님처럼 은유하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김 목사는



2024 봄학기 영성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모습. ©감신대

사역자로서의 소명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노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봄학기 영성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만나교회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뛰는 교회? 뛰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 백석대, 발달장애 아동 교육 돕는 ABA센터 개소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새로운 센터를 개소하며 발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 목사) 대학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캠퍼스 대학원 비전센터에서 '백석ABA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 센터는 기독교적 사랑을 기반으로 한 대학 설립정신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응용행동분석을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해 발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인지, 사회성, 일상생활 기술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백석ABA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3-6세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조기집중교육 프로그램'과 미취학 영유아 아동 및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교육프로그



백석ABA센터 개소를 기념하며. ©백석대

램으로 구성돼 있다. 백석ABA센터의 소장인 홍이레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화된 ABA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의 발달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라며 "대학 부속 기관으로서 응용행동분석 전공 대학원생의 교육실습 및 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수준 높은 ABA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 침신대, 2024학년도 학부 신입생 충원률 100% 달성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가 2024학년도에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충원률 100%를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침신대는 대학기관 평가인증 준비에 청신호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은 최근 침신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입학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교무처장 정승태 박사가 개회사를 맡았으며, 총학생회 임불꽃 회장의 기도와 신학대학원 원우회 신준수 회장의 성경봉독이 이어졌다. 그리고 총회장 박성웅 목사가 '창조의식과 비교의식의 삶이



대학 입학식 모습. ©침신대

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학사들을 격려했다.

이어 교무처장 정승태 박사의 학사보고와 총장 피영민 박사의 권면, 법인이사

장 이은미 목사의 격려사, 총동창회장인 홍석훈 목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또한, 신임교원 사약과 교직원 소개, 그리고 교가 제창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피영민 총장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설명하며 신입생들에게 진리, 중생, 자유의 가치를 전달했다.

그는 이날 학생들이 이 곳에서 진리를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며, 참된 자유를 체험하는 데에 주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등, 제2회 '귀츨라프 감자심기 대회' 개최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와 귀츨라프 장학회는 최근 보령시 오천면 초전교회에서 '제2회 원산도 귀츨라프 감자심기 기념 예배 및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832년에 독일의 선교사 칼 귀츨라프가 원산도에 상륙하여 한글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씨감자를 심어 복음을 전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배에서는 귀츨라프 장학회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의 지도자들이 설교를 진행했고, 귀츨라프 성령감자심기 대회를 주최하는 귀츨라프 장학회와 한국

동아시아교육문화원 간의 업무협약식도 진행되었다.

또한, 귀츨라프 성령감자 파종행사에서는 세직선 회원들이 약 300여 평의 땅에서 귀츨라프 성령감자를 심었으며, 이를 통해 귀츨라프 감자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귀츨라프 성령감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음 성취로는 다문화 대상 구심선교를 위한 귀츨라프 장학기금 마련과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논산딸기와 사랑에 빠지다”

# 제 26회 2024 논산딸기축제

NONSAN STRAWBERRY FESTIVAL

2024. 3. 21.(목) ~ 24.(일)

논산시민가족공원 및 시민운동장 일원

• 주최

• 주관

• 후원

• 축제문의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

논산문화관광재단 041-730-2928 / 2984



# 미국 기독대학 교수 “40년 사역에서 후회 되는 한가지”

미국 사우스이스턴대학교 전도 및 선교학 교수 겸 대학원 학장인 척 로우리스(Chuck Lawless)가 최근 크리스토포스트(CP)에 사역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로우리스 교수는 칼럼에서 “14년의 담임 목회를 포함해 40년 이상의 사역 경험 중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대학생들에게 충분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청소년(중고등학생)과 젊은 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대학생들을 간과한 죄가 있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후회되는 점으로 그는 “우리 주변에는 대학생들이 있었다. 현지 및 전국 각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었다”며 “하지만 매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오하이오 주의 카운티 내에도 우리를 위한 선교사가 되었어야 할 큰 공립 대학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신이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며 “미국에는 18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다닌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본 신념 체계를 고려해야 하는 삶의 전환기에 있다. 그들은 종종 탐구적이며 다른 신념 체계에 개방적”이라고 설명했다.

로우리스는 “이 점은 교회와 신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좋은 일”이라며 “하지만 삶에 관한 심오한 질문과 씨름하는 그들 결



척 로우리스 교수 ©사우스이스턴대학교

에 어떤 신자도 함께 걷지 않는다면 희소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중 100만 명이 이상에 미국에 건너 온 유학생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미국 가정 방문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은 종종 복음에 초점을 둔 선교 활동에 폐쇄적인 여러 나라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이 기회를 종종 놓치고 있으며, 내가 이끄는 교회도 그러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회하는 두 번째 이유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학생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성적이고 열렬한 전도사 및 제자 양성자가 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나는 거의 손자

백인 19살인 대학생과 함께 남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라며 “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열정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대화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가 헌신하는 다른 어린 학생들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헌신은 도전받았다”면서 “사실, 이 대학생의 예수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내 신앙은 다소 틀에 박혀 있고 진부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로우리스는 “최근 나는 신앙인 대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한다. 나는 거의 항상 ‘하나님, 제게 다시 그 열심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집을 나선다”라며 “그 덕분에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수년 전에 더 나은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이 실수는 오늘날도 내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사역 중 하나”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당신이 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이와 같이 당부한다”며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다가가라. 그들을 살펴보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라. 주변 지역 대학이나 대학교의 복음 사역을 알아보라. 그들의 지도자를 알아보고 당신의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 대학에 그런 지원이 없다면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권했다. 유진 김 기자

# 美백인 복음주의자 10명 중 7명 “불법 이민은 국가 위기”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에 몰려든 난민들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 ©CBS 8 샌디에이고 보도화면 캡처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비교 시민주보다 이를 위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발표한 자료는 2024년 1월 16일부터 21일 까지 미국 전역의 50개 주에서 5140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응답을 기반으로 했다. 모든 응답자는 퓨의 온라인 미국 동향 패널(American Trends Panel) 회원으로, 거주지 주소는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 문제가 여전히 주요 관심사임을 감안하여, 미국인들의 이민 정책에 대한 견해를 조사했다.

‘미국 국경에서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응답에서, 다수(45%)는 이 상황을 ‘위기로 인식했으며, 32%는 국경 유입을 ‘중대한 문제로 평가했다. 또한 17%는 국경 유입을 ‘사소한 문제로 간주했고, 나머지 4%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였다.

국경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종교 그룹은 백인 복음주의의 기독교인(70%)이었고, 그 뒤를 백인 가톨릭교인(64%), 백인 비복음주의의 개신교인(57%), 개신교인(57%), 가톨릭교인(57%)이 따랐다. 흑인 개신교인의 경우 국경 유입을 위기로 보는 비율은 32%에 불과했으며, 종교적 소속이 없는 미국인 중 같은 견해는 27%에 그쳤다.

대다수의 미국인(57%)은 ‘멕시코 국경에서 입국을 시도하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내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국경 유입의 영향에 대한 견해는 종교적 소속에 따라 달랐다. 백인 복음주의의 개신교인(82%), 백인 가톨릭교인(70%), 백인 비복음주의의 개신교인(69%), 개신교인(68%), 가톨릭교인(60%) 등 대부분은 미국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더 많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특별히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절반 미만(47%)이 국경 유입이 범죄 증가를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히스패닉계 가톨릭교인(47%), 흑인 개신교인(43%), 무교인(41%) 등도 의견이 일치했다. 국경 유입과 범죄 간의 연관성을 가장

적게 보는 그룹은 불가지론자(36%)와 무신론자(24%)였다.

종교적 소속에 따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온 이유에 대한 의견도 차이를 보였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미국에서의 좋은 경제적 기회(71%), ‘본국에서의 폭력(65%), ‘미국 이민 정책에 따라 입국 쉽게 체류할 수 있다는 믿음(58%)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찾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모든 종교 그룹의 대다수는 ‘미국에서의 좋은 경제적 기회가 국경 유입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믿음은 불가지론자(80%) 사이에서 가장 높은 반면, 백인 복음주의의 개신교인(65%) 중에서 가장 낮았다. 모든 종교 그룹 중 최소 절반은 ‘본국에서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고 답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백인 복음주의의 개신교인(50%)에서 무신론자(86%)까지 다양했다.

대다수는 미국 이민 정책을 ‘국경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이민법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종교적 정체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백인 복음주의의 개신교인(74%), 백인 가톨릭교인(69%), 백인 비복음주의의 개신교인(66%), 개신교인(65%), 가톨릭교인(65%) 및 히스패닉 가톨릭교인(62%)의 대다수는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쉬운 미국 이민 정책이 더 많은 이민자들을 불러 모은다고 말했다.

흑인 개신교인의 과반수(52%)도 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자의 미국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비종교 그룹의 절반 미만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특정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절반(48%)은 국경 유입이 미국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종교적 소속이 없는 응답자 44%, 불가지론자 41%, 무신론자 31%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국경 당국 간의 접촉은 2023년 12월에 30만 198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1월에는 접촉 횟수가 17만 6205건으로 감소했지만, 바이든 취임 이후인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남서부 국경의 범 집행 당국은 7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했다. 유진 김 기자

# 시애틀한사랑교회, 김소현·손준호 부부 초청 새생명 축제

오는 24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시애틀한사랑교회(담임 임은석 목사)는 오는 24일(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에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를 초청해 새생명 축제를 개최한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새생명 축제에서 김소현·손준호 부부는 자신들의 간증과 함께 감미로운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손준호·김소현 부부는 KBS ‘별후의 명곡’에 출연해 환상적인 화음과 호흡으로 가슴이 따듯해지는 무대를 선보였었다.

또 최근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도 부부가 함께 혹은 따로 출연해 솔직 담백한 입담을 펼쳐 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



다.

손준호는 ‘오페라의 유령’,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삼총사’ 등 다수의 작품으로 호평을 받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매력 가득한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으며, 김소현은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명성황후’ 등에서 음악성과 연기력을 입증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디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다. 김민선 기자

#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열린다

오는 4월 5일 오후 8시, 시애틀 형제교회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오는 4월 5일(금) 저녁 8시,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구국 기도회는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을 설

립하고 한국 복음화에 헌신한 오대원 목사(성령의 샘)가 강사로 나서 남북한 통일에 필요한 지혜를 나누게 된다.

구국 기도회 준비위원회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성도들이 합심해, 북한의 영적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김민선 기자



오대원 목사 ©예수전도단

2024 녹색·에너지 대박

REVOTECH  
REVOLUTIONARY TECHNOLOGY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공공열분해 선순환

● **재생자원(합성수지류)을 에너지로!**  
**국내 최초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REVOTECH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43 | www.revogreenpia.kr



# 한국VOM, 北주민이 보낸 감사편지 내용 일부 공개

한국 순교자의 소리(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북한 지하교인들은 자신들이 우리와 똑같은 유혹에 직면해 있으며, 똑같은 은혜로 그 유혹을 이겨 낸다고 보고한다.

한국VOM은 20년 넘게 북한 지하교인들과 동역하며 사역하고 있다. 단체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북한 지하교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인들이 보내온 편지 일부를 발췌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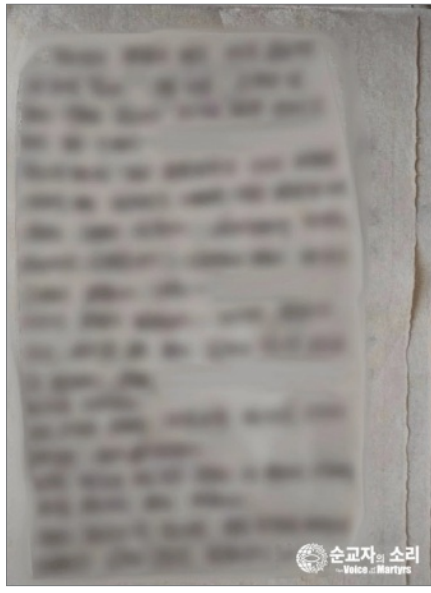
현숙 폴리 대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발췌문을 공개하는 이유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에게 북한 지하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지하교인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바로잡는 것에 있다. 언론 매체는 보통 북한 지하교인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기독교인으로 묘사하거나, 도움이 절실한 매우 약한 기독교인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북한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정말 비슷하다. 물론 정

치 상황도 크게 다르고, 그분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처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신앙생활에 관한 한 그분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읽고, 동일한 유혹에 직면한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에 응답해주는 동일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한국VOM이 매년 북한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 3-4만 권을 인쇄본 및 전자 성경 형태로 북한 내부 주민뿐 아니라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린 북한 여성들과 외화벌이 해외 노동자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받은 북한 사람들은 때로 한국VOM의 북한 현장 사역자를 통해 감사 편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국VOM은 이러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데, 때로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정보를 숨기고자 일부 단어나 표현을 변경한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북한



한국VOM이 공개한 북한 주민이 보낸 편지 내용 일부. ©한국VOM

내부 지하교인들이 순교자의 소리에 보낸 감사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했다.

1.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살지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장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3. “우리는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믿음의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불잡아 주시며,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는 데서 건져 내는 빛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5. “보내주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받기만 하는 죄스러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6. “하나님, 인생길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7.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8. “전에는 눈물겹도록 사랑을 하다가, 외로움 때문에 아프도록 울고, 굶주려 죽는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

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편지들이 북한 지하교인들의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북한 지하교인은 직계 가족 이외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건물이나 목회자나 신학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돌봐주시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편지들을 볼 때 북한 내부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VOM 같은 사역 단체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오늘은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날이다. 오늘날에도 성경은 계속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있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노형구 기자

## “신학윤리학, 기독교인의 행위에 신학적 근거 제시”

독일 윤리학자 마르틴 호네커의 ‘신학윤리학’ 한국어 번역본 출간

어느 때보다 성경적 가치와 규범의 절대성이 흔들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 윤리학 일반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신간이 출판됐다. 독일의 저명한 윤리학자 마르틴 호네커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인 ‘신학 윤리학 입문’(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을 오히현 박사(전 서울신학대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한 ‘신학윤리학’(도서출판 중문문화사)이다.

마르틴 호네커(Martin Honecker, 1934~2021)는 독일 울름에서 출생해 튀빙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69년부터 1999년까지 본대학교 신학부 조직신학 및 사회윤리학 교수로 활동했다. 대표적 저서는 ‘신학윤리학’을 비롯하여 ‘사회윤리학 개요’(Grundriß der sozialen Ethik), ‘사회윤리학 이론의 구성’(Konzept einer sozialetischen Theorie) 등이 있다.

호네커는 ‘신학윤리학’을 윤리학과 기독교인의 행위에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윤리학은 단순히 이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으로, 호네커는 신학적 윤리학에 대해서도 “교의의학이나 성서의 신학적 진술들을 기독교인의 행위와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때 신학적 진술들이 마련해주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또 그는 소편하우어의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들며 “도덕적으로 살도록 촉구할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요구된 것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며 신학 윤리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호네커는 이와 함께 “윤리적 자기규정 능력은 책임적 삶의 근본적 전제이며, 따라서 근본적인 가치”라며 “자유는 인간이 윤리적 인격체로서 지탱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윤리적 성찰의 역사는 바로 자유라는 주제를 실마리로 제시될 수 있다”며 “이런 윤리적 성찰에서 중요한 물음은 ‘무엇이 인간을 윤리적 주체에게 하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기독교윤리학을 포함한 윤리학 일반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윤리학과 관련된 사회학과 철학의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소개했다. 호네커는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여러 학자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개신교의 윤리적 견해뿐 아니라 가톨릭의 견해도 폭넓게 제시했다.

출판사는 “신학윤리학은 윤리적으로 유의미한 사태들을 알려주고, 윤리적 논증들을 소개해 준다고 할 수 있다”라며 “윤리학은 서술적이고 분석적이라 할 수 있는데, 윤리적 견해에 핵심적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제시, 즉 일반적인 윤리적 가치평가와 신학적 가치평가를 중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기독교적인 것, 즉 윤리학의 기독교적 고유성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

게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며 “윤리학에 관한 그런 견해가 필연적으로 신학적 관점들의 포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출판사는 “근거물음에서 ‘논증’은 정당화가 아닌, 근거를 제시하고 논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확신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논증은 왜 사람들이 특정한 가치평가와 제안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책의 1장은 연구과제를 서술하며, 2장은 ‘윤리학의 신학적 전제’, 3장은 ‘윤리적 근거개념’, 4장은 ‘규범들과 가치’, 5장은 ‘기독교 윤리의 기원’, 6장은 ‘사회윤리의 근본물음’, 7장은 ‘윤리학의 한계를 다룬다. 특히 5장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를 통해 성서와 현재의 상황 사이에 성서를 수용하고 해석한 역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런 연관성에서 개신교 윤리학의 고유한 신앙적 특성이 설 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6장에서 다루는 ‘사회윤리의 주된 개념’은 책임윤리, 다양한 삶의 영역들의 윤리를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전개한다. 이에 생명과 건강(의료윤리), 결혼생활, 가정과 성생활, 환경세계로서의 자연, 정

치와 국가, 산업과 국가 등은 우리가 보존하고 조성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할 자산을 말한다. 또 두왕국설이나 그리스도의 통치 같은 ‘신학적 세계관’은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자신의 의미를 해석하게 한다. 그다음 사회윤리의 결론으로서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찰한다.

물론 윤리학의 한계도 있다. 7장에서 윤리학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실존의 중요한 측면만을 다룬다는 점을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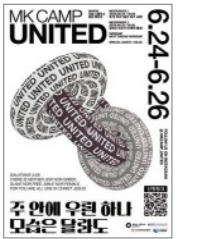
이 책을 옮긴 오히현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철학, 교육학, 신학을 공부해 석사학위를, 동대학교에서 하이데거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철학과 논리학을 가르치고 현재 번역작가로 활동 중이다. 책의 감수를 맡은 유석성 박사는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지도를 받아 디트리히 본회퍼에 관한 논문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안양대학교 총장,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지희 기자

## 2024 MK UNITED 캠프, 6월 24~26일

세계 각국 선교지의 MK 청소년들이 초교파로 모이는 국내 연합 캠프 ‘2024 MK 유니티드(MK UNITED)’가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예산군 스포스라움에서 진행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임을 달라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최현 목사(일산증가교회), 김선교 선교사(다윗의 열쇠 대표)가 각각 메시지를 전하고 서울드림교회의 넥스트 드림 워십이 찬양한다.

서울드림교회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싶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MK 친구들을 뜨겁게 예배하고 신나게 놀고 전우주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2024 MK UNITED 여름캠프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13세부터 19세(2012년생~2006년생) MK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는 1인 10만 원(형제 할인 가능)이다(문의: 010-2856-4776 선우진 전도사, 카톡 ID: MK\_jimmy) 이지희 기자



**KDIC 예금보험공사**

**급변하는 금융 날씨**

**우리에게 금융의 예보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까지

국민들의 금융자권이 국민의 KDIC

QR 코드를 스캔해서 예금보험공사 신규 광고를 확인해보세요!

예금보험공사 홍보대사 박은하



# 캐나다 의회, '혐오표현죄' 종교적 면제 폐지 법안 고려 중

캐나다 국회의원들이 성경적 결혼과 성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하원은 형법 319항에서 '종교적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 C-367을 검토 중이다. 평론가들은 이에 대해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단체가 성소수자(LGBT) 운동에 대한 논쟁이나 비판 때문에 '증오 표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C-367은 특히 형법 제319조(3)(b)항과 제319조(3.1)(b)항을 다루고 있는데, 형법 제319조(3.1)(b)항은 성실한 의사로 종교적 주제에 대한 의견 또는 종교적 텍스트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의견을 주장

함에 따른 혐오표현죄에 관해 어떠한 유죄 판결도 금지하고 있다.

종교적 면제가 폐지되면 성별 이데올로기, 아동의 성적 대상화 및 기타 유사한 주제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종교 또는 신앙 기반의 표현이 잠재적으로 '증오심 표현'으로 간주돼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퀘벡 불복을 이끌고 있는 이브 프랑소와 블랑셰(Yves-François Blanchet) 의원이 도입한 법안 C-367은 하원에서 초기 낭독만 진행했으며, 언제 진전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블랑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법안 C-367이 최근 캐나다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



©Pixabay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캠페인생활연합(CLC)과 같은 친생명단체들은 "이 법안이 기독교인에 대한 더 많은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

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CLC의 데이비드 쿡(David Cooke) 책임자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

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린이를 위한 드래그쇼, 아동 드래그, 아동 성전환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성소수자(LGBT) 공동체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의 낙태 반대 메시지도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제기독연대(CC) 제프 킹 회장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의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정치인들이 법원과 경찰을 통해 성경, 꾸란이나 다른 종교 문헌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독실한 신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파괴적인

법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킹 회장은 CP와 공유한 성명에서 "해의 독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침묵시키고 목 졸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 이제 서구의 정책(政敵)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최신 사례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열매를 누리려는 캐나다인들은 깨어나야 한다"며 "이런 종류의 법안을 추진하고 증오심 표현법을 발전시켜 보호와 통합을 팔고 있는 서구의 모든 정치인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이 다. 이들은 특별한 이익을 얻고 정적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모든 시민이 발전할 수 있게 보호하는 종교법과 표현법을 훼손한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 그리스 정교회, 동성혼 합법화 지지한 지역 정치인에 금지령 내려

그리스 정교회 지역 기구가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한 2명의 지역 정치인에게 금지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 북서부 코르푸 섬 주교단은 이 금지령에 찬성표를 던지면 서 이들이 "가장 심각한 영적, 도덕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했다.

AP통신은 코르푸 주교단은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두 지역 정치인은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의원은 영성체와 정교회 행사 참석이 금지되고, 공식

행사에서 성직자로부터 공식적인 예우도 받지 않는다.

지역 기구는 동성혼 합법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또 다른 정치인을 칭찬하면서 이들에 대해 "다른 신념과 상관없이 그리스에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금지령을 받은 의원 중 한 명이 속한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정당인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은 코르푸 주교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지난 2월 15일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176표,

반대 76표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동성혼 문제에 대한 오랜 양극화 논쟁 끝에 나온 결과다. 동성혼 합법화 외에도, 이 법은 결혼한 동성부부의 입양도 허용했다. 다만 이번 조처에는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의 초안은 좌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는 카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중도 우파 정부에 의해 제안됐다.

CNN에 따르면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것은 유럽의 가치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인 오늘날의 그리스를 반영하는 인권의 이정표"라

고 말했다. 새로운 법으로 인해 이전에 동성부부의 동성 결합 파트너십을 합법화했던 그리스는 동성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정교회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성소수자 옹호 단체인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전 세계 36개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했으며, 25개국이 국내법을 통해 합법화했다.

지난해 동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새해 첫날 발효됐다. 이미경 기자

## 이란 "핵협정 복원·제재해제 미결은 서방의 의지 부족 탓"

최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핵무기 생산수준" 언급에 반박

이란은 2015년 서방 강대국들과 맺은 핵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복원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목표로 한 국제 협상이 결말을 맺지 못한 것은 상대방 국가들이 협상 종결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란 외무부의 나세르 카니니 대변인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주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세계 열강과의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던 "제재 해제 회담"의 최근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란관영 통신을 인용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카니니 대변인은 이란은 그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꾸준히 성의를 다 했으면서 "상대국들이 협상 종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다면 2015 이란 핵협정에 관한 그 동안의 협상은 최단 시간에 이미 결론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랬다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의무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있던 나라들도 이란핵협정이 규정했던 자신들의 의무 이행을 위해 복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이런 반응은 최근 미국 대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집행이사회에 참석해서 "이란이 순도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 이를 모두 희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란의 행동이 순도 90%의

핵무기 개발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카니니 대변인은 "이란의 평화로운 핵 프로그램"은 IAEA의 국제 규정과 안전 합의에 따라 그 범주 안에서 이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서방측이 이란의 노력을 이해하고 양측이 함께 이란 핵계획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문답을 했다더라면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공식 이름의 핵합의를 세계 강대국들과 체결했던 것은 2015년 7월이었다. 당시 합의는 이란이 핵개발 계획의 일부를 포기하면 이란에 대한 각 종 제재들도 해제, 복구시켜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하고 빠지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도 복원되었고, 이란도 이를 계기로 핵합의의 일부 의무사항을 파기했다.

JCPOA의 복원에 대한 회담은 2021년 4월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수 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고 2022년 8월 회담을 마지막으로 회담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차미레 기자

## 러 의회에 '1954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양도' 무효화 법안 제출

1954년 양도 명시한 옛소련연방 헌법 무효화 추진  
러우 전쟁 종식 때 '크림반도 영유권' 주장 의지 포석

러시아 의회에 1954년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양도한 근거가 된 관련 법 조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1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콘스탄틴 자틀린 및 세르게이 체코프 러시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 1조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 범칙주의의 기본 원칙 및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러시아연방은 소련(USSR)과 소련연방(RFSFR)의 법적 후계자로서 "러시아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크림 지역 양도 결정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자의적 행동이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노

력하며 역사적 정의와 합법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1954년 4월26일 소련법과 크림 이전과 관련된 1954년 다른 모든 결정을 채택한 순간부터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러시아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넘겼다. 영토 문제는 최고 소비에트 회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절차를 생략했다. 이 때문에 '흐루쇼프의 선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연방에 속해 있던 시절이다. 흐루쇼프는 민족적으

론 러시아인이었지만 우크라이나계의 지원을 받아 서기장에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 국가가 됐다.

러시아는 1994년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했고 현재 사실상 실패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향후 러우 전쟁 종식 협상 때 크림반도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정원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발급권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할당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자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신민드 • 캠프 신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대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OUL M SOUL

지하철



버스



따릉이



기후위기 대응까지



카드 한 장으로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 기후동행카드

문의: 120 다산콜



# 국민의힘, 4·10 총선 앞두고 선대위 인선 완료

##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슬림화된 구성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진행될 총선을 대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지휘하며, 수도권에서

약하는 스타급 후보들이 지원 사격에 나선다. 12일 장동혁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윤재옥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진심을 담아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슬림화된 중앙선대위를 운영할 계

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 경기, 인천 각 지역에서의 승리를 견인할 공동 선대위원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도 중앙선대위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 캠페인의 실무를 담당할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종합상황실과 홍보단을 운영하여 선거 캠페인 중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권역별 선거 책임자와 특별위원회, 공보 조직 등에 대한 추가 인선을 실시한 후 중

양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대위 인선을 통해 당내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속을 다지는 한편,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선대위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용국 기자

## 민주당, 김부겸·이해찬 합류로 총선 승리 다짐

공천 파동 극복 및 당내 통합 강조하며 '다다익선' 목표로 본격 선거 모드 전환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와 이해찬 전 대표를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맞이하며, 최근의 공천 논란을 극복하고 당의 통합과 선거 승리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12일, 서울 여의도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다다익선"을 목표로 하며, 선거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위원장은 개인별 면담을 통한 통합과 선대위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경선에서 승리한 이들이 낙선자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위

원장 역시 최근 경선에서 패배한 이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분열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천 파동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선거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지지층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관계자들과의 대화와 방향 조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파동에 대한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의 책임자로서의 발언이면서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

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공천국면이 지나간 만큼, 이제는 선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대위에는 김부겸, 이해찬 위원장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박용국 기자

## 조국혁신당, 총선 돌풍 예고 '민주연합' 뛰어넘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신)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뜻밖의 강세를 보여며 정치권의 새로운 화제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지지율을 추월하는 현상을 일으키며 야권 내부의 지지 기반을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는 조국혁신당의 선명한 정치적 입장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검찰 독재 종식' 명분이 공감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대전 중구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야권의 투표율을 높이고 야권 전체의 지지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비례대표에서 10석을 확보하는 것이며, 비례대표 후보 명부가 총선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으며, 박용국 기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섰기도 했다. 이는 특히 야당 지지층 중 '지역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혁신당에'라는 교차 투표 의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 배경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 지지층이 대안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으며, 박용국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경북 농촌으로 오이소!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 **오이소**는 농촌체험·관광·여행·음식·숙박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여행 및 관광지 정보 제공**  
여행객의 목적지, 여행 기간, 소요예산, 여행 목적, 여행 방법, 최적의 Package Tour 스케줄 안내 등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득한 소통창구**  
SNS 공유, 리뷰 등록, 오이소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경북농촌체험관광 홍보 콘텐츠 제공**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에서는 영상,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체험·관광상품 판매**  
최신 트렌드, 감성, 테마, 스토리가 반영된 체험·관광·음식·숙박 축제 등의 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www.gbois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시 갑 출마 선언

### 민주당 탈당 의원 합류 예고도

세종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김종민이 1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 2-3명의 합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현재 민주당 내 고인 중인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이 중 1명의 확실한 합류와 추가 2명의 합류 가능성을 통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을 의석수에서 앞서는

것으로, 언급대로라면 새로운미래가 유리한 선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세종시 갑 선거구 출마 선언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 정치와 기득권 양당의 비효율적 싸움을 비판하며, 일하는 정치와 협력의 공동체 구현을 강조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종을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으로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박용국 기자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질문 받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뉴스시스

## 러시아, 한국인 첫 간첩 혐의 체포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긴장 관계와 더불어 러시아의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선교사 백모 씨는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에 넘긴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현재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사건 자료는 일급기밀로 분류됐으며, 러시아 법원은 백 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AP통신은 러시아가 최근 외국인들을 다양한 범죄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체포 및 교환 사례 등은 러시아가 외국 시민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BBC와 알지저라 등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에 동조

해 러시아를 비난함으로써 비우호적으로 지정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 관계를 심화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체포 사건은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첫 사례로, 러시아에서 간첩 행위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다음 행보와 이 사건이 러시아-한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 정부, 北의 핵보유국 인정 바램은 '허황된 꿈' 강조

정부는 12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는 미국 정보당국 보고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며, 정부는 북한 핵 포기를 위한 목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희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체제 안전과 국가 자존심의 보장

도구로 보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 협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대응과 협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박용국 기자



# 정부 “의대 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등 가능”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 발표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그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들과의 대화 계획이 있다며, 정부가 의료를 여러 분야와 지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응급실 운영, 중환자실 입원 환자 유

지 등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설립 시 배치 기준을 개정하고, 국립대병원 전임 교수 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와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의료 연구 및 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공의와 의대생,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법적 대응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의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결정에 있다. 교육부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이 결정에 대한 반대로 전국의 전공의 1만여 명과 의대생 1만 3000여 명이 사직서 제출 및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대표들과 의대생 대표들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행동에 대응하여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 병원 떠난 전공의, 1만 2천 명 넘었다

12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근무지를 떠난 사태에 대해 상세한 현황을 공

개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서면 점검 결과, 전공의 1만 2909명 중 93%인 1만2001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탈자 수가 1만2000명을 초과하고 이탈 비율이 93%를 넘어선

최초의 사례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의사 면허 정지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556명의 전공의에게 사전 통

지서가 발송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를 통해 전공의들이 원할 경우 다른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제 피해 사례 접수는 없었으나, 센터가 공식 개통된 만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나래 기자

#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활성화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63건으로, 전월 대비 40.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역시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84.7을 기록, 상승세를 보이며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에서 2월 56.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 1월 29일부터 3주 만에 총 3조 3,928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출을 한 번 갈아탄 경우 대한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 자산 심사 오류, 신규 대출 인정 기간 제한 등의 이유로 대출 거절 사례가 발생하며 신청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 신용점수 상승 기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조치가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과 지속적인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연체 이력이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298만 명의 개인과 31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점수는 개인의 경우 평균 37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이에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차주들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여러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되며, 이는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승인, 더 유리한 대출 조건 변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용사면 조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대상자도 오는 5월말까지 연체금을 상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 기간이 단축되어,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조건이 기존 2년간 성실 상환에서 1년간 성실 상환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소액 연체자에 한정하고 연체금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 번째로, 과거에도 비슷한 조치가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美中갈등 속 중고 반도체 장비 판매 중단

영국의 파이널셀타인스(FT)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제재와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세 명의 소식통은 이들 기업이 장비를 참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으나, 기업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러한 조

치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22년부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 장비를 보관하기 시작한 배경이 되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주요 통신장비 및 반도체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규제 부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현재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에서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51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가 기업들이 느끼는 주요 규제 부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54.6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은 오는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노동 규제 개선(48.0%), 조세 부담 완화(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 형평(17.9%) 등의 과제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70.2%는 올해의 규제 환경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15.0%에 그쳤고, 14.8%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정책 일관성의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의 축소(40.2%), 그리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준법감시필 2022-11

**푸른씨앗** 심고! 희망 미래 열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선택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자 10,000명 돌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좋은 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보다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춥니다.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회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익권이 보호받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투자이사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콜센터 1644-0083    검색창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를 쳐보세요!



# 북간도 3·1운동의 의의와 특성(1)

## 한국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과 기독교의 주도성에 대한 연구



김동준 목사 (서울제일교회)

북간도 3.1운동은 한국 3.1운동과 비교하면 유사점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북간도 3.1운동은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꾸준히 항일운동이 있었고, 3.1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독립운동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주도층에 있어서도 한국은 종교인의 연합(기독교16명, 천도교15명, 불교2명)에서 시작되었지만, 만주 3.1운동은 시작도 끝도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이었다. 또한 3.1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가 결성되었을 때 그것을 촉매 촉진케 한 것도 북간도였으며, 한 해 뒤인 1920년에 있었던 15만원 탈취사건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등이 북간도의 항일운동단체 특히 기독교계 단체에서 주도된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 1. 북간도 교회의 3.1운동 준비 과정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 전 북간도에 있는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교회에 알렸다. 이것은 북간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주독립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게 하였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구체적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간도의 교회들은 국권회복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1918년 9월 말부터 11월까지 함북노회 특별회를 4차례나 개최하였다.

함북노회 제3회 회의록에 의하면, 특별회에 참가한 북간도 지역의 교회는 국자교회, 장암동교회, 와룡동교회, 동불사교회, 명신동교회, 천보산교회, 두도구교회, 장은평교회, 구세동교회, 태양동교회, 명동교회, 용정교회 등이었는데 이들 교회를 대부분이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는데 앞으로는 그 중추세력이 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북간도교회의 행정체제인 세사찰화-간동시찰회, 간북시찰회, 간서시찰회-의 조직을 통하여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시찰회를 중심으로 북간도의 목사, 장로, 선교사들은 협력하였고 선두에 나섰으며 각 교회들에게 독립시위운동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12월에는 캐나다장로회의 선교사들과 각 교회의 대표자들로 발기인을 구성하여 독립운동을 위해 연합할 것을 결의하였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 간도지역 교인들이 함께 하는 연합기도회를 용정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이 기도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철폐되고 불평등조약이 폐기되고 영토 침략주의가 종식

되어 자유 평등, 박애의 기독교적 이념의 사회가 구현될 것을 소망하자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이 기도회에서 부두일(Foote) 선교사는, '파리강화회의에 제미 한인 대표들이 미국정부에 탄원하여 미국 사절단의 수행원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북간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한편, 제창병원 원장 민산해(Martin) 선교사도 북간도 '파리강화회의는 자유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될 것이므로 영국에 있어서 인도의 문제와 일본에 있어서 조선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견해를 들은 북간도교회 지도자들은 조선의 독립문제가 파리강화회의에서 결정된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런 때에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준비사항이 통보되었다. 즉, 미국에서는 안창호 이승만, 연해주에서는 이동휘, 동청철도연선 대표자로는 백순, 이들의 수행원으로는 명동학교 교사를 지낸 박상환이 추천되었고, 시베리아 대표자로는 러시아의 '연추한족회' 회장인 최재형이 추천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곧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어 한국의 독립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내용은 함께 러시아 연해주에서 열리는 회의에 간도 대표자를 선출하여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간도에서도 즉각 대표자를 선출

하기로 결정하고 1919년 1월 25일 국자가(연길) 소영사에서 20명의 각 지역위원들이 모였다.

이 모임에서 러시아 연해주 회의에 파견할 6명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는데, 명동학교 교장 김약연(장로), 용정교회 정재면(전도사), 국자가 이중집(장로)이 뽑혔고, 그 수행원으로 국자가 와룡동 창동학교 교사 정기영(집사)과 훈춘지역의 대표 2인으로 황구교회 양하구(장로)와 박태환(전도사)이 선정되었다. 이들 6명은 2월 25일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열리는 "전로국내조선인회의"에 가기로 결정되었다.

계봉우의 <북간도 과거와 현재>에 의하면, "마침 이 때에 예수교 전도대회가 신년 1월 총회로 모여 국자가(연길)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런 때를 이용하여 신도층의 일반 동지가 단합하여 충분한 계획을 의결한 후에, 강봉우씨는 내지로, 김약연 정재면 제씨는 러시아령으로 파견한 일이 유하였다."라고 하였다.

"전로국내조선인회의"에는 만주, 연해주, 조선국내에서 파견된 대표 약 8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대표단으로 연해주 대표로 이동휘, 동청철도연선 대표로 백순, 국내 대표로 이용이 내정되었지만, 상해에서 온 신한청년단 대표 여운형이 국제적 감각이 있는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의 대표로 이미 파견된 사실을 전하였다. 이에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영어, 불어 등 외국어를 해독하고 다소 교육이 있어 세계의 정세에 통하는" 인물인 윤해와 고창일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3단계 독립운동방략과 "대한국민의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창립식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공포한 뒤 만세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북간도에서는 연해주에 대표단이 출발한 바로 그 즈음에 1월 21일 사망한 고종의 소식이 전해졌다. 고종 독살설이 함께 퍼지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고 각 교회에서는 추도예배를 거행하였다. 이 기회를 통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독립선언서를 공포하며 각지에서 시위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와중에 2월 1일 무오 독립선언서가 선포되었다. 무오 독립선언서는 국내의 명망가들 39명이 서명한 것으로 길림에서 발표되었다. 만주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인 김교헌, 김동삼, 김약연, 김좌진, 여준, 이동휘, 문창범 등이 포함되고 있고, 육탄혈전을 강조한 점에서 이후 3.1운동 이후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2월 18일 국자가(연길)에서 연길도운공서 외교과 직원인 장로 박동원의 집에서 결핵식 축하연으로 위장하여 15명이, 20일에는 이동식의 집에서 각지의 대표들 33인이 모여 비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비밀집회에서 북간도 시위운동을 위한 3가지의 구체적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제1. 간도 내 각 교회 및 단체는 서로 단결, 협력, 일치하여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한다. 제2. 로령에서 독립선언서를 공포할 시와 동시에 간도 내 각 단체는 일제히 시위운동을 개시한다. 제3. 독립선언서를 발표 후 간도 내 각 단체의 대표자가 용정에 집합하여 독립선언의 기세를 앙양시킨다.

제항에서는 모든 종파와 단체가 연합하여 반일시위운동을 벌인다는 것이고, 제2항은 러시아 연해주에 모인 "국민회의"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함과 함께 간도각지에서 일제히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고, 제3항은 용정에서는 대표자가 회합하여 연합시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이 모임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할 기구로 "독립선언운동 의사부"를 결성하였다. 또한 일본 관헌에게 체포될 경우 희생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주축된 결사대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결사대원들은 1918년 가을에 결성된 "철혈공복단"이 주축이 되어 회원 모집 및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만세시위운동은 차근차근 준비되었다. 캐나다장로회 선교부가 경영하는 제창병원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와 개회통지서를 등사하여 간도 각지에 보내는 한편,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만들어 교회조직을 이용하여 간도 전역

에 수일 만에 전달하였다. 또한 용정의 목사대표단은 서고덕(Scott) 선교사를 방문하여 용정촌에서 거행될 독립선언 축하회 및 시위운동 상황을 북경주재 마곡공사와 상해의 외국인 기독교 목사단에 전보로 통보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서고덕 선교사는 이를 승낙했다.

한편 북간도의 학생과 청년들도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준비하였다. 이들은 2월 15일 영신학교에 모여 "기독교학생총회"를 조직하고 각 학교의 학생대표를 선출하였는데, 명동학교 유익현, 국자가(연길) 도립중학교 최용렬, 김필수, 소영사의 광성학교 김호, 정동중학교 송창문 등이었다. 학생대표들은 만세운동의 실행에 관해 구체적 행동을 협의하였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감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명동학교 유익현을 북간도 한인 학생 대표자로 선출하여 16일 연해주에 파견하였고, 3월 1일에는 용정촌 기독교학교와 용정교회에서 3회에 걸쳐 만세운동을 벌였다.

### 2. 북간도 기독교 3.1운동 경과 및 의의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 중국과 조선에서 일제히 광기하여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자는 계획에 따라, 북간도에서는 러시아에서의 선언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독립선언서의 발표가 번역 등 준비관계로 늦어졌고,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이 이미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3월 7일에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용정, 국자가(연길)의 위원들은 북간도 각지의 대표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대책을 간구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간도 자체적으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김영학목사를 대회장, 구춘선장로를 부회장으로 하여 3월 13일 <독립선언서발표축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월 8일부터 북간도 각지의 교회에는 본격적인 집회준비가 시작되었고, 3월 10일에는 각 사립학교가 휴교 조치한 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연길의 행정책임자(도운) 도반에게도 경비를 부탁 교섭하였지만 10일에는 찬성하다가 11일에는 일제의 압력에 따라 불허한다는 통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3월 13일 용정의 장남에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독립선언 서명자의 이름으로 중화민국 외교부와 길림성장 앞으로 독립선언과 독립운동에 관한 통첩을 발송하였다.

3월 13일, 북간도의 모든 사회, 교육,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망라된 '조선독립의 사부'의 지도 속에, 2만 명 가까이 모인 한인들은 상부사(尙樞地) 밖의 기독교학교인 영신학교 앞마당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막상 시위가 시작되자 중국 군경 탱크가 지휘하는 기병대가 군중들을 흠뻑 덮고 있었고 군중들은 결국 장소를 옮겨 동북쪽으로 수십미터 떨어진 서진밭(龜甸大野)로 옮겨가 시위를 진행하였다. 용정 서진밭에 집합한 한인들은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명동학교 학생들은 고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선두로 나섰으며, 명동학생 앞에는 총렬대가 깃발을 흔들며 나아갔다. 이들은 식이 끝나는 대로 일본영사관에 돌진하여 독립선언결의를 선포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총렬대원 중 다수는 권총까지 휴대하였다. 당시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 시위대가 간도주재 일본총영사관을 지날 때 일본 군경들은 시위대를 향하여 총을 발사하였다. 현장에서 10명이 즉사하고 중상을 입은 시위대원 9명이 후에 숨졌다. 3.13 만세시위운동에서 총19명의 사망자와 46명의 부상자가 생긴 것이다.

용정에서의 독립선언식이 있는 후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등 북간도 전역에서 교회나 학교가 서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독립운동의 시위가 있었다. 연길현을 위시하여 이도구, 두도구, 삼도구, 흑정자, 화전자, 국자가, 구사평 등지였으며, 화룡현에서는 양무정자, 토산자, 칠도구, 팔도구, 이도구, 하광포, 신흥평, 청산리에서 각각 시위운동이 있었다. 왕청현의 백주교와 수분대전, 라자구 등지의 한

인들도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훈춘현에서는 동구, 황구, 남별리 등의 주민들이 3월 20일 500여명이 모여 무장을 갖추고 반일시위운동을 벌였다.

한편, 서간도 지역은 통화현 금두화교회에서 처음으로 3.1만세운동이 시작된 후 1919년 4월 2일 대황구교회에 약 3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삼원부 부민단의 총기입문제를 협의하고 성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으며 항일투쟁에 대비하였다. 1919년 5월에는 유학한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기독교인 안동식, 김창환 등은 한인의 교육을 통한 신민회의 기본목표인 해외독립운동 기지간선에 전념하였다. 통화현의 최봉석 목사와 흥경현의 오대규 목사 등은 급진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일제와의 투쟁을 준비하였다. 집안현의 기독교인들은 천도교인들과 연합하여 의용단, 청년회 등의 단체를 설립(총장-허선노장로)하여 이후 급진파와 연대하여 항일연합 전선을 구축하였다.

북간도 교회의 3.1운동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장기간의 문화계몽운동을 통하여 만주의 한인들에게 반일민족의식이 크게 고취되었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반일운동의 선두에서 서서 대중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간도3.1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선언서의 발표는 북간도지역 특유의 독특성이 있다.

이미 만주지역에서는 2월1일에 무오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북간도 3.1운동에서 발표된 선언서는 서울에서 발표한 3.1 선언서와 비교해 볼 때 유사성은 있지만 다른 내용이다. 3.13에 발표된 선언서는 <독립선언서발표축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서명자는 김약연 등 북간도 대표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서명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의도적인 자신의 지역에 맞도록 지역의 인사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각 지역마다 <독립선언서 발표축하회>의 형식으로 계속 시위운동을 하도록 하는 취지였다. 또한 북간도3.13운동은 소수가 먼저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과는 달리 대중적 반일집회를 열고 <독립선언서 발표> 발표와 함께 경축회 형식으로 만세시위운동을 하였다.

둘째, 북간도3.1운동의 진압을 중국 군경이 주도한 것으로 지금까지 왜곡하였는데 사실은 일본이 진압을 주도하였다. 또한 시위에서 사용한 깃발은 태극기 뿐 아니라 중화민국 국기도 있었다.

이전에는 시위를 무장으로 탄압한 것이 중국군경들이었다고 하였다. 일제 역시 그 책임을 중국군경들에게 떠넘겼었다. 그러나 간도총영사는 그날 "일본경찰도 중국군경과 함께 시위대원을 제지하였다"고 실도하였고, 실한 조준 사격은 일본 경찰이 자행하였음이 밝혀졌다. 흉상표는 제창병원 민산해원장과 자신이 직접 배를 운반하였는데, 사망자에게 나온 총알은 일본경찰의 권총 탄환으로 중국 군경이 가지고 있던 장총 탄환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중국인들은 3.13 만세 시위에 함께 참여하여 조선인과 중국인의 공동투쟁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이런 대규모 시위운동을 목격한 중국 동북인들이 북경, 상해 등 본토인들에게 3.1운동을 선전하였고, 그것이 중국의 5.4운동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시위를 주도한 집행부의 대부분이 기독교계 목사, 장로들이었다. 대회장 김영학목사, 부대회장에 구춘선장로 등 집행부의 대부분이 기독교계였고, 시위를 주도한 청년들도 기독교계학교인 명동학교, 영신학교, 창동학교 학생이거나 출신이었다. 북간도 3.1운동 모든 과정의 기자에는 기독교 단체와 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계속>

※상기 강연은 지난 3월 8일 경동교회에서 있었던 한국복음주의협의회 3월 월례회 발표 내용 전문입니다. 자료제공: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의 판매수익금 전액은 장학사업에 쓰입니다!**

## 중장년 남성을 위한 무료 체험 기회

### 전립선을 건강하게! 눈을 선명하게!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연구진의 중장년 남성을 위한 건강케어 프로젝트!**

**1. 전립선을 건강하게! 소변을 시원하게!**

-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로르신)** 식약처 기준 1일 최대 섭취량 115mg 함유
- ▶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진뇨감, 빈뇨, 야뇨 고민이신 분들

**2. 침침하고 흐릿한 눈을 선명하게!**

- ▶ **마린골드꽃 추출물(루테인)** 식약처 기준 1일 최대 섭취량 20mg 함유
-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인 **루테인**을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중장년 남성을 위한 8중 기능성 설계**

① 전립선 건강을 위한 <b>쏘팔메토 열매 추출물</b>	⑥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b>비타민D</b>
② 지구력 증진을 위한 <b>목타코사놀 함유 유지</b>	⑦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b>비타민E</b>
③ 눈 건강을 위한 <b>마린골드꽃 추출물</b>	⑧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b>비타민B2</b>
④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한 <b>비타민A</b>	⑨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b>아연</b>

**무료로 먼저 드셔 보시고 결정하세요!**

## 30일간 무료 체험 100% 환불 보장

지금 신청하세요

무료체험 문의 및 신청

# 1666-3753

▶ 24시간 상담 가능 ▶ GMP 인증 ▶ 품질관리인증 ▶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 이찬수 목사 “선한 일 행하신 예수님처럼 선한 일 행하며 나아가길”

## 주일에배서 설교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사진)가 10일 주일에배서 '준귀한 자는 준귀한 일을 계획 하나니(마태복음 4:17-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최근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인 ‘준귀한 자는 준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귀한 일에 서려나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자 가로 구원받은 준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준귀한 일을 계획하고 준귀한 일을 행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극복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다. 그 선 언처럼 알리는 선포가 17절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선포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사역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다.

그는 “18-19절을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21절을 보면 다른 두 형제 세베

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으며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애를 보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과 다른 하나는 그 일을 전수시켜 줄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하셨다’고 했다.

이목사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사역의 큰 두 기둥이 되었다.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 받는 것이며 그 일을 계속 해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교회는 주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다”며 “제가 29살 때 목사가 되기 위해 종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까?’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35년 동안 묵화하면서 저에게 힘이 되었고 삶의 즐거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개

개인 전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것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는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하셨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였다.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모함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며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은 선한 일을 사모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라를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 선지자다. 한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간구했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으며, 악한 시대에 쓰임 받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했다.

이목사는 “교회 공동체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계속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고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사의 시대는 악하고 어두운 시대였으며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였다. 그 불임의 시대에서 한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며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1)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

나심을 잘 모르면서 다니는 것 2) 중간 단계로서 하나님께 나의 심정은 말하는데 그게 일방통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은 관심 없고 오직 내 심정만 토로하는 것 3) 하나님과 내가 쌍방으로 소통이 잘 되어 서로의 심정을 잘 아는 것이다. 한나라는 한 나라 앞에서 심정이 잘 통했으므로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선한 일을 실제로 아들 사무엘이 어두운 시대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른 베드로의 이후 행보를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과 앞으로의 일을 몰랐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고 계속 주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지점은 놀랍게도 그가 가장 비참할 때였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했다. 16-17절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2번 더하셨고 베드로는 이에 2번이나 같은 대답을 했다’고 했다.

이목사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고 하신 말씀 중 양은 목자 없는 양 같이 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는 그 시대 사람을 의미한다. 오늘 교회가 베드로 같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이 목사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은 목자 없는 양이다. 이 시대는 혼미한 시대다. 우리가 가이오 등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목자 없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가 어떤 과거의 아팠던 기억이 가나안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재료 가 되길 바란다. 그것이 이 시대에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다.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교회의 무기력을 보시고 아파하신다. 그 심정을 아는 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며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기도를 통해 치유 되길 바란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을 잘 깨닫고 주님의 애용함을 헤아리며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두려움 해방, 나의 예상과 기대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두려움에서 해방’ 주제로 메시지 전해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사진)가 ‘두려움에서 해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다.

김양재 목사는 “우리는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존재다. 오죽하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이나 등장했겠는가”라며 “날마다 두려운 일이 많은 이때, 여전히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걸 갖고도 두려워했던 한 사람과 궁지에 몰려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며 “아람 왕이 이스라엘 국경 지대를 습격하며 약탈을 일삼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느 동네를 치러 가면 꼭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진을 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니 아람 왕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불안은 분노에 휩쓸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는 두려움에서 일어난다”며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이 분노”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공격 목표를 다 알려주셨다”며 “내 예상을 빗나가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정확히 예상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목사는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람이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며 “365일 여러 가지 불안이 덮쳐 와도 엘리사처럼 때마다 큐티로 묻고, 공동체에 묻고 나아가갈 때,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한가”라며 “나의 예상과 기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측량 범위 밖에 있어”

조현삼 목사, ‘가이사라 2년’ 주제로 메시지 전해

서울광영교회 조현삼 목사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가이사라 2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목사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결박과 환난뿐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2년간 거기 있는 감옥에서 재나 로마로 호송되었다”며 “이것은 사람들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 있다. 이를 두고 ‘그렇게 호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더니 겨우 감옥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전도자는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발은 묶였다”며 “복음 전도자로 그의 길은 막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바울의 가이사라 2년은 허비한 시간 낭비한 세월, 고집이 날린 2년, 감옥에서 썩은 2년 같이 보일 수 있다고 덧붙혔다.

그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감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일”이라며 “전도자가 손발이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의 가이사라 2년은 허비한 시간도, 낭비한 세월도, 고집의 쓴 열매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가이사라 2년 동안 바울은 고위층을 많이 만나 복음을 전했다. 로마군의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했다.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다. 벨릭스의 뒤를 이어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뿐 아니라 유대 왕 아그립바2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다 심문받고 재판받는 과정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이런 고위층을 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바울은 다 만났다.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넣으시고 그리로 이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



조현삼 목사 ©서울광영교회

량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고 했다. 조 목사는 “우리에게도 가이사라 2년이 있다. 사람의 눈에 허비하고 낭비한 것 같은 2년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을 보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이사라 2년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서 성경지리강사로 사역 중인 유병성 목사님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이사라 2년이었다”며 “유 목사님은 찾는 이가 없어 성경지리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때 카메라를 들고 성경의 땅 곳곳을 돌며 성경지리강상 200여개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들은 길이 보존 될 한국교회 자산”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SAMJIN** 삼진제약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sup>®</sup>쿨다운정

30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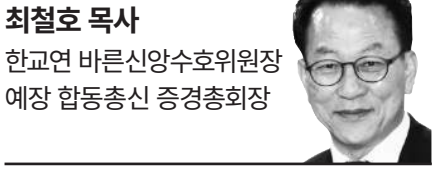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 신앙과 주변 학문에 대하여



**최철호 목사**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장  
예장 합동총신 중경총회장

## I. 들어가는 말

신앙(信仰)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신불(神佛) 등을 굳게 믿어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에 따르는 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신앙이란 유일한 신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faith)과 신뢰(trust)로 그분을 믿는(believe) 삶 그 자체를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은 양립되거나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생명의 영속성이다. 따라서 신앙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물질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따라서 이 짧은 논고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 과연 성경(책)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다른 주변 학문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기독교 신앙의 주체인 하나님

우리의 신앙 대상, 즉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엘로힘’, ‘여호와’, ‘주’ 등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명칭은 순전히 인간을 위함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호칭도 필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왜 그런 단어가 호칭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여러서는 질문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창 17:1), “나는 그들의 하나님”(창 17:8), 그리고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창 28:13)고 한 말씀을 통해 그 호칭을 명확히 인식할 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책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접한 책 중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 단연 독보적이다. 라틴어 원전과 병행하여 국내에 번역된 그의 책은 무려 1391페이지에 달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에 못지않아, 그의 방대한 저서 <<신학대전>> 가운데 무려 책 3권(제22문제-제43문제)을 할당하여 삼위일체론을 논하였다. 하지만 이 방대한 삼위일체론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간단명료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신앙의 축약된 고

백서인 니케아 신조(AD. 325),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AD. 381), 칼케돈 신조(AD. 451) 등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언문이다. 이들 신조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의 공적 회의(공의회)를 통하여 수없이 화합하여 목숨 걸고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로마 황제의 권위까지 덧붙여서 공포한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 필요는 없겠다.

## III. 하나님을 설명하는 독특한 용어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영적 실재이다(하나님은 형체가 없다). 그것도 시간 안에서 공간을 점유하고 존재하는 유한적 실체가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무에서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존재)하시는 실재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그분의 모상에 따라 지음 받은 피조물이고, 따라서 인간 존재의 근원이요 출생의 자궁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고 한 것이다. 여기서 ‘영원(eternity)’이란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할 때의 그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주체요 근원이며 제1원동자인 하나님을 말한다.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본질(本質)’을 의미하는 ‘우시아(라틴어는 스킴타티아 substantia 혹은 에센티아 essentia), 그리고 ‘위격(位格)’을 의미하는 ‘히포스타시스(라틴어는 페르소나 persona)’이다. 원래 이 두 용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모두 사물의 ‘본질’ 또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오리게네스(185-284)는 ‘히포스타시스’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구별된 세 위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시아’와는 구별하였다. 나케아신조가 공포되었을 때만 해도 두 개념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니케아신조 공포 후 약 45년 쯤 지나서 가이사라의 감독 바실(330-379)이 자기 동생 님사의 그레고리(335-395)에게 보낸 서신에서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삼위일체론의 용어 확립에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질에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동일본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요 14:10)고 하셨다. 하지만 성경에 직접 하나님을 가리켜 ‘본질’이란 말을 사용한 바는 없다. 다만, 누가복음 15장 12,13절에 두 번 ‘재산’이란 의미로 사용되

었다. ‘히포스타시스’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히브리어 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히 1:3)고 하였고,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히 11:1)라고 하였다. 여기 ‘본체’, ‘실상’은 모두 그리스어로 ‘히포스타시스’이다. 이 용어는 원래 ‘아래 서는 것, 어떤 것의 기초’를 의미한다. 그리스 철학에서 널리 사용하던 이 용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위격’이란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틴어 ‘페르소나’는 원래 연극배우가 쓰던 가면을 가리킨다.

다시 거꾸로 말해서,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소폰’인데, 본래 의미는 얼굴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개념 인간을 뜻하게 되었다. 페르소나는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용어로 사용된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페르소나를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정신의 한 단면으로 보았다. 하버트 ‘히포스타시스(페르소나)’는 하나님을 제1위격인 성부 하나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할 때 고리신학자들은 ‘구분’과 ‘구별’이란 용어를 엄격히 나누어서 사용한다) ‘위격’이란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영어의 person(인간), personality(인격)는 모두 라틴어 persona에서 유래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켜 ‘인격이 있다, 성령도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하버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의 용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빌려온 것으로, 이점에 있어서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도 마찬가지이다. 이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의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이성, 판단, 개념, 정의, 근거, 관계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이와 같이 철학은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는 그러한 면면을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마이스터 엑크하르트 등 여러 신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에 신학은 철학에 좀 더 분명한 통찰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철학이 절대궁극자인 신(神)을 이성으로 탐구하는 학문인 반면, 신학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을 이성과 영성으로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 IV. 설교와 학문

설교(說敎)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종교상의 교리를 널리 설명함”이다. 교리(敎理)란 그 종교가 지향하는 가르침에

대한 이치를 말하는데, 따라서 기록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조금 덧붙여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성과 영성을 동원하여 파악하고 깨달은 바를 잘 가르치는 데 있다. 따라서 교리 설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설교는 아주 쉽게 해야 합니다. 원어, 전문 용어를 동원하면 안 되죠. 문맹인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진리는 쉽게 전할수록 좋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진리가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설교는 쉬워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설교 전달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한다. 영적 어린이(고전 3:2; 벰전 2:2) 수준인 초신자나, 공부한 바 없는 연세 많은 노인이나, 차체 환자가 입주해 있는 요양원에서 하는 설교는 아주 쉬워야 한다. 하지만 의사나 교수 같은 지식인들 앞에서, 그리고 목자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비유컨대, 젓맥이 아이에게는 “까꿍”하면서 “맘맘맘” 한다. 이유식을 먹으라는 말이다. 만약 성인에게, 의사나 교수나 목사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정신병자 취급 받을 것이다.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러하다는 말이다. 설교는 영적 음식을 먹여주고, 그리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행위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영적 음식을 조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먹여주는 방식, 스스로 먹게 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설교자에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영적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조리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데, 능력은 세 범주로 나뉜다. 태생적인 것(재능, 훈련과 노력(공부)), 하나님의 도우심(성령의 조령과 영적 통찰)이다. 재능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설교자인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 공부에 게으른 설교자는 무식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고, 경험에 따르면, 기쁨 부여(안수) 세우심을 얻은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은사)을 부여받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적으로 목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이유이다. 설교는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논리 정연할 필요는 없다(하지만 설교집으로 문서화할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대형교회의 주일설교는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쫄면이나 이유식 같은 음식일 수밖에 없다. 처음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했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구원, 중생, 성화, 십자가의 대속, 영생, 이런 말을 남발했다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더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준비와 전달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청중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설교자 자신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열, 스물을 알아야 한다. 안다는 것은 곧 지식을 말한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영권(靈權)이 강해서, 설교할 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두 알려주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영적 사기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영적인 것만 있지 않고, 물질적인 것도 충만하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모두 당신의 나라를 위해 두루 사용하신다. 설교자(목회자)에게 있어 지식의 제일 원천은 당연히 성경이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성경만 사용하라고 하시는가? 목사(목회자)에게는 성경 이외 다른 학문(철학, 과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기도로 병을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병이 기도로 낫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는 것이 더 쉽고 빠를 수 있다. 아마 병원의사를 전적으로 배척하는 목사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어떤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을 더 자주 찾는다. 설교, 더 나아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 외에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V. 영적 통찰

흔히 말하는 ‘환상을 보는 것’과 영적 통찰은 다르다. 환상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영혼)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이미지이다. 그런 이미지의 근원은 대략 세 가지이다. 영광에 기인한 정신적·감정적 현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적 메시지, 악령이 부여하는 유혹이다. 악령이 가져주는 것에 대하여는 초대교부들 그리고 중세의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수없이 경고한 바이다. 소위 성령과 악령의 ‘양신역사(兩神役事)’는 언제나 발생한다. 따라서 성령에 의한 환상인지, 악령이 가져다주는 환상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분별력과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적 통찰은 그런 신비적 요소를 별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 씀하기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행 2:38; 고전 6:19; 갈 2:20 등). 성령은 ‘돕는다’는 의미를 지닌 ‘보혜사’(요 14:16,26; 16:7)이시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방면으로 도우신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照明)’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영적이고 신비한 빛을 비추시어 무엇이든 잘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통찰이 필요인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에게 더욱 필요하다. 영적 통찰의 쓰임새를 좀 보자.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이성(理性)만으로 하는 것과 영적 통찰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철학박사 학위를 소유했다 할

지라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에 관한 부분에 있어 결코 진리의 중심부에 진입할 수 없다. 그리하여 걸만 맬들 뿐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2:13).

이 은총은 성경 이외 다른 학문에게까지 확장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동서양의 고전 내지 철학 서적을 읽을 때 이성에만 의존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한다. 이를테면 플라톤이 말하는 ‘하나’ 혹은 ‘최고선’ 혹은 ‘궁극자’는 거저 하나이고, 최고선이고, 궁극자일 뿐이다. 하지만 영적 통찰에 의한 깨달음을 얻게 된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을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집단적으로 잠재해 있는 ‘원형’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성경은 아주 쉽고 일반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플라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의 무의식 속에는 아담 이후 유전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원형으로 들어 있다는 말이다. 이는 동양의 주역이나 사서삼경, 노자, 열자, 인도의 베다 문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속에는 창조질서와 자연질서, 인간의 영적작용과 절대자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이 무수히 들어 있다. 그것을 단순한 철학적 사유로만 그친다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하지만 영적 통찰이 가미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이외 학문을 접할 때 영적 지경을 넓혀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풍성한 지양분이 되어 우리의 설교를, 깨달음을, 영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VI. 나가는 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를 다스리시는 통치주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해 헤아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에 의함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바탕 위에 전개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름 받은 주의 종들이다. 원래 모든 존재는 선하며(창 1:16 이하 참조), 그 속에는 물질뿐 아니라 인간 사유(思惟)의 산물인 제반 학문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재료가 풍성하면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 몸에 좋은 영양분만 예기스로 뽑아 먹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유의 향유(享有)도 어긋날 것이다. 진실로 주변 학문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바,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배척하기보다는, 육적·영적 지경을 넓혀 만유를 포용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

**세상에 행복을 물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 생존경쟁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진화론으로 유명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1809-1882)은 세상의 모든 생물은 생존경쟁(生存競爭)을 거쳐 이기는 자만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도태된다는 진화론을 전개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생학(優生學)으로 이어지는데, 자연 선택이 진화에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종(種)만 살아 남고, 지는 종은 도태되어 버립니다. 이 이론은 약육강식(弱肉強食) 이론과 연결되어,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먹이가 되어, 이 세상에는 강한 것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 무한(無限)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 투쟁은 비단 다른 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 사이에서도 심지어 같은 암자가 낳은 형제, 자매들 가운

데서도 이루어집니다.

2016년 중국에서 보내온 판다 부부가 2023년 7월 7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습니다. 판다가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약 50%라고 하니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 두 쌍둥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눈도 뜨지 않고, 털도 나지 않는 신생 동물이지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암자 젖 경쟁을 합니다.

야생에서 쌍둥이가 둘 다 생존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사육사들은 쌍둥이들의 고른 성장을 위해서 녀 달 동안 쌍둥이를 번갈아 가며 돌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녀 달이 지나면 아기 판다들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합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쓰러지길 반복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육사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두 녀석들은 엄마의 젖을 더 많이 먹으려고 경쟁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힘이 세고 강한 녀석이 그렇지 못한 녀석보다 엄마의 젖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엄마와의 스킨십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사육사들은 뒤처지는 녀석을 보살피 주면서, 매일 체중을 재고, 분유를 보충해 주면서, 두 녀 다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주식인 대나무를 제대로 먹지 못하니, 녀석들은 계속해서 모유 경쟁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이죠.

이 판다들이 야생에서 살았다면, 틀림 없이 힘없는 녀는 강한 언니에게 치여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 세계의 잔혹한 생존 법칙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더 불어 도우며 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만 살아야 한다는 생존 법칙만이 존재하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동물의 세계와 다릅니다. 인간은 일반 동물과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Image of God)대로 창조되었기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사는 동물 세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홀리스)를 돌보라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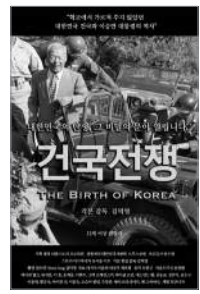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눅 4:18-19)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존경쟁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자와 가난한 사람과 병자들과 고난 받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반 세상은 생존경쟁, 약육강식이라는 원리가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하여 세상의 동물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뀌어 나가야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 좌파 美 교수도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든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

허상기 대표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前 국토해양부  
종합교육기관 부장교수



대한민국을 건국 가치로 깨우는 김덕영 감독 <건국전쟁>에서 그레그 브레진스키(Gregg Brazinsky, 폴란드 출신)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를 보며 “진실을 알면 자신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는 주변의 이해는, 갈라치기에 서있는 모든 국민이 <건국전쟁>을 보고, 진실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12월, 당시 한미 친북세력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을 흔들려 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의회에 그들이 내세웠던 ‘한반도평화법, HR3664. 종전선언 지지는 끝내 미의회에서 미셸 스틸 의원, 영 김 의원 등과 함께 하는 우파의 압박에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에 A-학점을 한

국은 북한지원 약속이 중요하다. 북한은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북한인권보호는 호응을 하지 않았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본을 ‘반일운동으로 맞선 것’은 잘 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 한국문화 홍보를 잘했다’라고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를 보고 모두가 고소(苦笑)를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건국전쟁>에 등장해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더니... 나는 진실과 증거, 증언 앞에 무너져 내린 좌파 역사학자를 보며 <건국전쟁>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미국의 유명 좌파 학자인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 워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는 <건국전쟁>에 출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시종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레그 브레진스키(Gregg Brazinsky)는 좌파가 맞으나, 김덕영 감독 <건국전쟁>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인터뷰는, 대한민국을 기리게 했던 한국에 사는 양립된 모든 국민이 깊이 새겨 봐야 한다. 이승만기념관추진단이 그려냈듯이 이념 갈라치기가 없는 전직 대통령 자녀로 구성되어 다시 사는 우리를 통해 좌경화된 문화는 무너져야 한다. 이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간절히 소망했던 조국통일, 국론통일, 국민대화합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언행을 보인 이승만을 좌파들은 얼마나 미워했을까? 그런 까닭에 좌파들은 역사왜곡을 통해 이승만을 철저하게 깎아내린 것이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 ©wiki

착박한 이만사회에서 애초 애국활동가들은 좌파교수 등장에 대해 석연치 않은 항의를 할 수 있으나, 해야 할 사명은 그들이 독립운동과 건국의 진실에서 보석정신을 찾는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란다.

<건국전쟁> 미국 촬영 전부터 장시간 같이하며 간절했던,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주의 사상의 식민지와 같다”고 하며 읊조렸던 가슴에서, 이제 극장에서 건국과정의 보석정신으로 밝게 같이하는 회복의 가슴에 다시 새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조선이 침범을 당하여 을사늑약으로 식민지가 되어도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때, 식민지 애국의 동포를 두고 나와서 독립을 위하여, 한인이 겨우 2,000-3,000 명이 머무는 하와에서 농노처럼 살며, 버려지다시피한

아이들을 모아, 기숙이 가능한 한인 기독교 학교에 남녀공학으로 독립을 꿈꾸고 사회일꾼으로 당당히 서도록 가르치며, 또한 교회에 한인인 있는 각 섬 네 곳에 두어 신앙과 독립을 위하여 “몸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고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이끌어 내었다.

이는 애국 땅을 나와 독립을 하려고, 종단이 없는 한인기독교회를 세워 위로와 희망으로 버티게 하며, 현금과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민족의 교회와 사랑의 실천이다. 그런 교회가 독립하고 건국한 후 공산주의와 전쟁을 승리한 후, 당시 하와이 독립 운동가들이 모금하여 하와이목사를 담임목사로 하여, 인왕산에도 “하와이한인독립교회”를 나라 없이 척박하게 살다 가신 선조를 기리고, 건국과 공산주의에 이긴 기념인 자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세워진 기념교회가 나라 잃은 한을 담고 있다. 이렇게 지어진 교회 모두 4.19와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사유화가 급속히 되어가는 듯 풍광에 휩쓸려 위태로웠다.

이는 이민 선조들의 피의 값으로 지어진 교회요, 대한민국 동포들의 재산이며, 더 이상 식민지처럼 처절하게 관리되고, 재물처럼 처분하려 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전하는, 그 사역이 철저히 낮은 자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선교를 위해 떠나, 선교사역으로 이어진 이승만 대통령을 배우려는 동포의 모습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흔적들이 우남선생을 닮아 가려는 품이 있는 국가적 무형유산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룬 교회이고 산역사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성경의 대사역자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위를 갖고, 위대한 나라를 독립하고 나서 지키고, 민족을 깨우치게 한, 성전으로 이어온 사역자 이승만의 사랑이다.

우리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어, 그가 쓰레기에 덮여 왔었던, 보석정신인 우남 이승만 정신을 닦아내어 빛내고 있다. 자유우파는 ‘김덕영이라는 보물을 얻었다. 이 또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이제 우리 한민족은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같은 애국활동가를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보석정신인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찾아, 어렵고 압박감을 주는 사회정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연히 찾아 나선 김덕영 감독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다.

당신들 덕분에 2024년 우리의 삶이 우남선생 이승만 대통령 보석정신처럼 빛나고, 같은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두 분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뜨거운 찬사가 가슴을 채우며 전해진다. 그 선구자가 건넨 하와이 해변의 일출이 오늘 따라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동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취약지역의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

###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원 지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

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

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리 기자

## 서울시, 외부접촉·도움 거부하는 고립가구 찾아가 지원 확대

서울시가 외부와의 접촉이나 사회적 도움을 거부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립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기방임, 심리적 이유 등으로 외부와의 접촉·관계지원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위기가구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2년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지원해왔다.

지난해 고독사 위험에 놓였지만,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던 72가구를 수 차례 방문해 설득 끝에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바 되었다.

우선 시는 올해 고립가구의 경직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현물·현금 등 '사회도약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립가구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접촉활동가'도 늘릴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자문·협력회의도 확대한다.

복지기관 30개소와 함께 '있다+(플러스)'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가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통장주인 등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위험가구에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방침이다.

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고독사 위험

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에도 들어간다. 올해는 고독사 비율이 높은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총 23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현재 11만 가구인 모니터링 대상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 중 위험도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이 매주 1회 이상 전화로 하거나 방문해 안부를 살피도록 한다.

정성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고립가구의 끊어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다운 기자

## 늘봄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위해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 손 맞잡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늘봄학교 운영에서 발생하는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청과 적극 협력하기로 나섰다.

강사, 예산, 공간 부족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교육청은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하도록 하며 지자체 협력 돌봄인 '학교돌봄터'와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의 공간 부족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지자체와 협력하며 모두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 7일 경기도청과 아동돌봄 실무협의를 갖고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협력 지점을 찾아나섰다.

실무협에서 ▲실제 돌봄의 수용 및 초과수요 현황 공유와 공동 대응 ▲협력돌봄 시설 확대 및 지자체 돌봄시설의 돌봄 시간 연장 추진 ▲경기도가 운영하는 돌봄 시설 공유 ▲지역별 늘봄, 돌봄 공동지도 제작 ▲아동돌봄 실무협의 상시 운영을 통한 늘봄학교 지원 등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무협에서 경기도청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청에서 늘봄학교의 성

공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학교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할 때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느는 초1 학교 안심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학교 안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독립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교사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돌봄을 운영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고,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건국전쟁>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8) 군포제일교회 청년부 이수아

## 기도로 건국된 나라, 대한민국

일제의 지배를 받던 시대를 지나고 마침내 광복,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맞이한 독립이 아니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반으로 갈라질 수 밖에 없었다.

한민족이지만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달랐다. 그렇게 6.25전쟁이 발발하며 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그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추구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국민을 바른길로 이끌고자 힘썼다.

<건국전쟁>의 내용은 학창 시절 배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

은 '독재자', '배신자' 등 온갖 부정적인 단어로 그려졌다. 그러나 <건국전쟁>에서는 달랐다.

영화를 보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곳곳에 공산주의 사상이 심어져 위태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자 힘쓰고, 이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분이 있었다. 무엇보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도로 건국된 나라임을 깨달았다.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들은 왜곡되거나 단편적인 부분만 비추는 경향이 있다. <건국전쟁

>을 통해 교과서 근현대사의 내용이 모두 올바르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바른 기준을 세우기도 전에 출처 모를 가짜 뉴스들과 거짓 정보들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은 잘못된 역사 의식이 분명히 있다. <건국전쟁>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에 대한 바른 통찰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바로 깨닫게 되길 소망한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총회 공고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2024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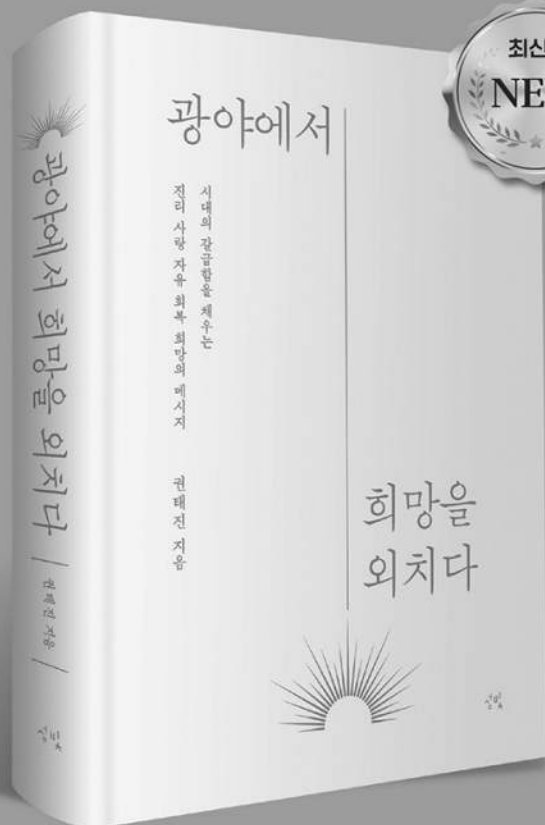
- 일시** 2024년 3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예배당 1층 에덴홀(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2)
- 안건** 1) 2023 결산 보고의 건 2)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의 건 3) 정관 변경의 건 4) 기타 안건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정 동 만



KCA **한국기독교총연합회**  
The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岩) 권 태 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맞이하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즈디자인&건축**  
최윤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이재훈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었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생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겸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을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훈 목사.**  
소 :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 시 :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 (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화 :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훈)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등록 민간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2013-2407)  
**교회복지사**  
교육생모집  
**2024년 3월 개강**

교육장소  
서울\_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종로5가역, 2번 출구)  
대전\_본회 교육센터 (서대전사거리역, 5번 출구)  
통신과정은 계절학기에 출석수업

등록비 30만원  
농협 355-0018-2184-03  
(예금주: 한국교회복지사회)

**한국교회복지사회**  
홈페이지문의 www.cws95.net  
전화문자문의 010-9643-6356

**획기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

기/승/전/치킨집 or 커피숍!?!  
국내 레드오션 NO!  
글로벌 비즈니스가 해답이다

세계1위가 될 사업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도,  
예상이 없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이템은 있으나 예산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면 예산은 갖고 계시나  
아이템이 없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5년 사업완성  
국민은행 975901-00-026853  
헬프사람넷 조현철  
한구좌1억 8명 제한

\*투자진행시: 변호사 공증 및 10%배당 서류전달  
(단계별 수익 창출과정 일목요연 프로세스 제공함)

전화: 010-9897-2003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인의 교회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은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 특 징 ]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원활한 혈액순환!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사순절 기간 도서 키워드는 #묵상 #십자가 #가상칠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묵상하는 기간인 사순절, 이와 관련해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출간됐다. 그중에서 어떤 책들이 주목을 받았을까. 본지가 선정한 사순절 관련 도서는 아래와 같다.

- ▲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생명의말씀사)
- ▲ 예수님의 가상칠언(생명의말씀사)
- ▲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두란노서원)
- ▲ 다시, 봄(예수전도단)
- ▲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뉴원출판사)

생명의말씀사에서 출간한 존 파이퍼 목사(베들레헴 신학교 총장)의 저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주변에 전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의미를 설교하거나 나누기 원하는 목회자 및 리더, 성도들을 복음 전도자로 양육하기 원하는 교회 및 단체를 위해 집필됐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파이퍼 목사는 이 책에 구원의 문제에 관한 50가지 핵심을 신약성경에서 찾아 명료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한다(히 5:9).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나'라고 말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히 4:15).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나, 실제로 사람이셨고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욕구를 느끼셨으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체적 약점도 가지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고, 그리스도께서는 한결같이 이 사랑으로 행동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성경이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불순종을 그치길 배우셨다는 뜻이 아니다. 새로운 시련이 닥칠 때마다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아름 가운데 배우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하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마 3:15)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부터 십자가에 이르러까지 그분의 의와 사랑을 시험하는 유혹과 아픔이 없었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맞춤형 구원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므로써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게 아니었다. 고난을 받으셨기에 진정으로 사람이셨고 그래서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실 수 있었다"고 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라원기 목사(별처럼 빛나는 교회 담임)가 집필한 저서이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남긴 일곱 말씀의 중요한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독자 손에 친히 들려주기 위해 집필됐다.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상칠언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해 온 끝에 라 목사는 이 책을 썼으며 그가 집필한 <다시 보는 십자가> 이후 더 깊어진 통찰을 안고 독자 곁을 찾았다.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도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예수님의 가상칠언」,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다시, 봄」,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함임을 보여 준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음번에 믿지요' 하면서 미룬다. 그러나 그 '다음번'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다. 내게 닥친 시련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온케 하는 사람들이다"고 했다.

두란노서원에서 출간한 김기현 목사(로고교회 담임)의 저서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는 사순절 묵상집으로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각자 한주의 핵심 말씀으로 하여, 독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낭독하고, 필사하여 기록하고, 묵상한 것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감내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입으로 손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 삶의 시작과 마침은 관계이다. 관계가 어긋나면 하는 일마다 성공 가도를 달려도 일시에 정지하거나 이탈 또는 일탈하고 만다. 이때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가정이다. 그래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인 것이다. 관계 맺기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상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이나 말이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듯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가정이다. 내 관계의 중심에, 내 가족의 핵심에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세례(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 그것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특정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순결한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희생 제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이다"고 했다.

예수전도단에서 출간한 김학중 목사(꿈의 교회 담임)의 저서 <다시, 봄>은 2024년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자'라고 설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시 따라가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다시 발견하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며 그분에게 집중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여될 것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았다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라도,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정리한 게 전부 아니다. 세상이 정한 방식도 아무리 정교해도, 다수가 인정해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인생의 링을 바꿔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링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잘사는 날보다 뒤쳐져 보이겠지만, 결국 보석처럼 그 인생이 빛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때때로 불신과 원망과 좌절의 바람에 흔들린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만큼 크다. 하지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면, 언젠가 반드시 구원의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는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도 세상의 바람에 맞서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고 했다.

뉴원출판사에서 출간한 김수연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의 저서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은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의 길을 암재, 치유, 순례, 십자가라는 네 부분을 통해 묵상하는 큐티 묵상집이다. 저자는 "하나님은 인간적 소망이 모두 사라진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죽은 나무는 꽃이 피지 않으며 말라 버린 사막에서는 물이 흐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상과 절망을 반전시키며 시작된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기록한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수치를 알고 계신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길 바란다.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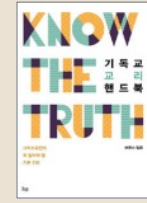
### 3월, 작가들의 말말말



천국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기형적인 복음은 "나쁜 소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을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요구 사항들을 덧붙인다." 이처럼 왜곡된 복음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어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과정에 자신의 행위를 개입시킨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한 것이다. 복음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이 기형적인 복음의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매튜 W. 베이트 '예수 왕의 복음'



기도하는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는 습관은 전적으로 옳바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는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매우 적절한 말씀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대화나 탐색 범위 바깥에서 제삼자로 계신 분이라는 전제하에 "그분이 현재(또는 과거나 미래에) 어떤 분이냐"를 아는 데 있지 않다.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삶의 매 순간 그 능력과 은혜에 온전히 의지한다. '오소서, 성령이여!' 거룩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죄와 악을 거부하고, 그것과 분리된 신적 기록을 구현하신다.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자체가, 인간의 죄와 무력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응답이다. 무한한 사랑과 신적 기록의 제약 속에서, 그분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신성한 심판을 받고자 가까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다. 사랑과 거룩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도 통합된다. 성령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일, 즉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브루스 밀른 '기록교 교리 핸드북'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똑바로 말할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나는 2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정신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직접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태어나는 날부터 죽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병원의 분만실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와 우리의 삶의 길을 가도록 보내진 악령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마귀가 당신의 삶에서 순간을 포착하려고 시도하는 데 단계 또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두려움의 암을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하기에 이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거울과 같으므로, 당신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시간과 인생 전체를 먹어 치우는 이러한 패턴과 주기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옳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임을 아십시오.

존 라미레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천내산교회)



#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

매일묵상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2 마귀가 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자기 부정과 참회를 통하여 부활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리스도 교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담아주시는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 사는 자에게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사랑에 근거해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에 뿌리박고 깊이 연합함으로 주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의 섬김과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자기 부정의 사랑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 죄 없으신 주께서 고난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에게 가장 필요하

고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물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처해진 자에게는 어떻게 건져줍니까? 그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무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방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요.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아래 죽을 아래 죄 아래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죄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음부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을 얻고 천성을 향해 가게 되었습

니다. 이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관념적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목상이 깊어져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이 이 사랑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진정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그 사랑에 눈뜨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감사하고 부활절을 진정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발목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묵상해야 할 첫 단추와 같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고 내 안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 바이블칼럼

##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 V

“어째서?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일이다. 나는 악하고 불순하고, 불 경건한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악하지도 불순하지도 불 경건하지도 않으신데... 어째서? 어째서?” 다음 순간 루터는 벽에 맞은 듯한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버림당한 그리스도를 만난 루터”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는 비텐베르크(Wittenberg)의 아그스틴 수도원에서 새로운 참회의 방법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어 보려고 힘썼다. 한번 죄에 대해 고해(penance)를 시작하면 때로는 6시간 동안 계속하기도 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그는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수도원장 슈타우피츠는 화를 내곤 했다. “마르틴, 하나님은 그대에게 화를 내지 않는데 어째서 그대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가?”

참회는 루터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죄의식과 죽

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무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불려 떨어지듯 부들부들 떨었다. 짐승에서 마귀는 자기를 자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도우려는 천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계속 무서운 심판 주문만 보냈다(Bainton, Here I Stand, pp. 52-56).

신비주의자였던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신비주의적 방법을 제시했다. 인간적 노력을 포기하고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의 사랑 가운데 빠져 버리는 방법이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기주장과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마치 하나의 물방울이 대양 속으로 쫓겨가듯 태양의 광채 속으로 빠지듯, 피조물이 창조주의 품속으로 빠져 버리는 방법이였다. 루터는 때로 천사들의 찬양 속으로 높이 이글거리는 환희를 체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듯한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곤 했다. 하나님은 접근하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장엄하게 보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사랑 가운데 버려진 사람과 그의 사랑 가운데 버려진 사람과 다르게 보였다. 루터는 태어난 것을 한하며 하

나임을 미워한다고 부르짖었다. 슈타우피츠는 어느 날 수도원 정원의 배나무 밑에서 루터에게 마지막 방법을 제시했다. 성경을 연구하여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라는 것이었다. 루터는 한숨을 쉬며 15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루터는 슈타우피츠의 권면을 받아들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년 만인 1512년 9월에 신학박사 학위를 획득했고 1513년 8월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 강해를 시작했다(Here I Stand, pp.56-60).

루터는 드디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해하는 가운데 복음을 접하는 종교적 체험을 했다. 첫 번째 종교적 체험이 슈토테른하임의 뇌성벽력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로 일했고, 두 번째 종교적 체험이 제단에서 미사를 집행할 때 소멸하는 불과 같은 공포로 일했는데, 이 연애는 세미한 감성으로 일했다. 성경 연구와 성경 강하는 루터에게 다메섹 도상과 같았다. YEFK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roverbs 5:22 NIV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the cords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 cord: 끈, 줄  
- hold: 붙잡다  
- fast: 단단히

(잠언 5장 22절)  
못된 자들의 악한 행위는 그들을 묶어매며, 그 죄의 끈들은 그들을 단단히 붙잡는다.

- evil deeds: 악한 행위  
- the wicked: 못된 자들  
- ensnare: 묶어매다

Philippians 4:6 NIV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 request: 요구사항, 소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 anxious about: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 but(부사): 단지  
- petition: 간구(懇求), 기원(祈願)  
-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 present: (말로) 표현하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A B C

###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정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미네랄이 풍부하여 마른(麻木)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木)의 의미를 더하여 천마(天麻)라 불려 왔으며 예부터 정풍초(正風草)라 불리기도 했다. 정풍초란 이름 그대로 바람을 다스리는 물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붓대같이 색이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속이 비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색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색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색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색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이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서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세이 없어 말라버린 채로 있어 건조한 인공 건조물은 그 질을 잃는 여가 바, 무엇보다도 매일 세를 뿌려 놓았다가 자연 메일을 보고 채취했다.

천마의 색에는 이미 돌아가지 않고 붓대처럼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루터가 성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가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냈다.

루터는 천마라 명칭하며, 줄기는 적전(赤前) 또는 정풍초(正風草)라 불렀다.

천마는 천마 뿌리에 버섯처럼 균근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라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알,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옛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열과 열이 서로 응치거나 몸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몸이 어지럽고 속이 멎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청력이 약해진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간장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 목회자분들께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8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이주영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훌륭한 품질의 ‘홍천마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건강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을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유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히 은퇴목사님, 장로님께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니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혹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신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어느 질병이든 믿고서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문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중풍·고혈압·당뇨·만성두통·우울증·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현호 시무장로



## 강지윤 칼럼 **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강지윤 박사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과 습관은 무의식(잠재의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절대적으로 옳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깊이 들어가보면 자신을 지배해온 무의식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세뇌받은 가치관이나 기준은, 어릴 때의 크고 작은 상처나 어떤 기억들이 무의식을 저장하는 뇌 안에 저장되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생존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을 일삼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긴장관계 안에 있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남편은 늘 저와 어머니를 비교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는 늘 남편의 평가에 미달되어 비난을 받는다고 느껴요. 시어머니가 훌륭한 면이 있긴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늘 비교당하는 느낌을 20년이 넘도록 당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절대로 큰소리를 치시는 법이 없으시죠. 자식들을 위해 인내하며 어려운 중에 기도하며 저의 남매를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교육방식이 달라요. 늘 소리치시고 야단치고...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자신의 기준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 간에

자꾸만 아픔과 생채기를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관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무의식은 우리들의 기억과 행동의 원천이며, 잠든 때나, 깨어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일련의 행동은 지극히 작은 영역이며 대부분의 삶은 무의식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습관들,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가족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습관들은 모두 무의식의 명령에 저절로 따르는 행동들입니다.

사람의 성격도 무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영향은 의식의 차원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행동 중에서 의식이 지배하는 부분은 10%로 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어릴 때의 반복되는 경험이나 자극입니다. 경험이 반복되어 프로그래밍되면 성격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정리정돈을 안한다고 야단을 맞고 자라난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강박증이나 결벽증을 앓을 확률이 높습니다. 늘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맞은 아이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기만 하면 또다시 야단맞은 기억이 무의식



적으로 발동하여 쉽게 주의를 산만해지고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굳게 하고 다시 시도해보지만 10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온갖 공상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자라난 경우, 그 경험이 고착되어 무의식에 형성되면 비난 받은 자신에 대한 자책과 강박적으로 그 상처에 대한 방어를 하느라 에너지가 고갈되고 말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자란 경우와 반대로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는 의식의 영역이지만 무의식은 의식의 영역에 침투하여 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태도나 결심을 깨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의식에 쌓이는 경험들은 성격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아시절 대소변가리기 훈련에서 엄마가 너무 엄격하게 유아를 대했거나 혼을 내게 되면 강박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통제적이고 감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면 예의바르고 책임감이 강한 반면 반항적이고 공격적 성향과 고집이 강한 성격이 형성됩니다. 편애를 심하게 경험하고 자랐다면, 비합리적이고 내성적이고 비사회적인 성격이 형성되거나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거부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타인

는 부모들이 곧잘 하는 말은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데, 애만 문제네요. 이 아이만 상담해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부모를 상담하고 나면 아이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체계 안에서 얽히고설킨 다양한 비합리적 무의식의 작용들이 아이의 비상사적인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일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무의식적 비합리적 신념이나 행동들을 “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서까지 고집스러운 모습을 고수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벗어버리려는 노력을 주님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 오늘의 예화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자네들 그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라고 점점 말하십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게 아니면 누가 한 거냐? 도대체 그럼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노교수께서는 다시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네!”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한 것이라고 아주 신중함,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바로 마틴 루터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때에 루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께서는 다른 것은 전부 참고하게 하고 오로지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한 학기 내내 Page by page, 읽고 토론하고 연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을 두 번 썼습니다. 처음에 쓴 것은 좀 작고 뒤에 쓴 것은 아주 큰데 신구약 성경보다도 큼니다. 이 갈라디아 주석을 읽

어 나가노라면 루터가 얼마나 갈라디아서에서 불같은 은혜를 받았는지 엄청난 생명력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진리, 이 생명력이 그를 포로해서, 그를 사로잡아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잡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순종할 따름입니다.

### 은혜 한 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로마서 14:17

- **基督日報**  
www.cdaily.co.kr

## 종교개혁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 통증 완치설명서**

당신의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이영석 정형외과 전문의 지음  
유재철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역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톤치드**



## 천로역정 고란사 가는 길(3)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노하는 일이 어찌 없겠는가”

아파트로 돌아와 빈집의 적막함과 홀가분함을 동시에 맛보았다. 이번 기간 중에 난 백제의 멸망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었다. 신라의 적극적인 대당 외교로 인한 나당 연합군의 결성이 결정적인 원인인가. 당시 외교라는 것이 좀 그런 면이 있다. 지리적으로 당과 가까운 백제가 아닌 신라가 당과 그랬다는 것이. 하긴, 일본과 가까운 신라가 아닌 백제가 일본과 외교 활동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물론 백제 의지왕의 실정으로 인한 정치 질서의 문란, 지배층의 향락적 생활로 인한 백성들의 일체감의 상실 그 원인인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당시 백제의 사정과 그렇게 된 연유라고 할까,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의 무슨 뿌리라고 할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고 싶었다.

승자인 신라보다는 패자인 백제 쪽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은 무슨 심리일까. 완만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백제 문화에 마음이 가기 때문인가. 승자와 패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연한 계기로 어쩌다 승자가 되거나 패자가 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필연과 우연이 반반씩 결합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방 안에 배어 있는 화장품 냄새가 싫지 않게 느껴졌다. 아내는 그저 피부를 위해 필요한 화장품 몇 개만 사용하는 것 같았다. 성격 자체가 화려하지 않는 이유인지도 몰랐다. 하긴 그랬다면 나와 인연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었다.

아내와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배 배로 알고 지내다 서로 졸업하고 학교 밖에서 우연히 만나 차를 마시고 밥을 같이 먹고 하면서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남편의 관계라는 것, 그 본능적인 심사는 하는 것이 참으로 묘했다. 학교 밖에서 자주 만날수록 스킨십이 시작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지고 해서, 아내의 집안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다. 전공이 국사인지만 서양 문화에



일러스트 전선영

대한 관심이나 교양이 바닥이었는데 아내 덕에 서양 음악에 대해 조금 눈을 뜨게 되었다.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멋스럽게 보아서 만져본 클래식 기타를 하나 사서 카르카시 기타 교본으로 연습을 해서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

할 수 있게 되자 피아노만 악기나 하면서 난 어깨를 끈추세웠다.

아내의 화장대를 둘러보다 성격과 노트가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다. 아내가 있을 때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곳인데 괜한 호기심이 생겼다. 노트를 슬쩍 들여다보았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

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글들이 보였다. 아니, 아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몰래 무슨 죄를 지었던 말인가? 그런 내용이라면 집을 비우면서 노트를 감추지도 않고 그대로 펼쳐 놓고 먼 여행을 떠난다 말인가. 눈을 돌려 성경을 보고는 한 곳을 들추어 보았다. 예레미야 17장 9-10이 눈에 들어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마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이 그리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반발이 들면서 수궁이 전해 가지 않았다. 성경을 한 움큼 쥐고 앞으로 넘겼다. 빨간색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태복음 5장이 펼쳐졌다. “...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순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였다.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노하는 일이 어찌 없을 것이며,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라면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를 보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어찌 안 할 것인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모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사실일까? 거짓이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럴 리는 없는 게 아닌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가? 예수는 지옥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가?

나는 아내의 방에서 나왔지만, 아내의 노트와 읽은 성경의 내용이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계속>

글 박철근 교수(백석대학교), 창조물에 제곱

### 신앙과 가정

## 다른 것일까, 틀린 것일까?

“다르다 (different)”와 “틀리다 (Wrong)”은 그야말로 전혀 다른 개념이고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자주 혼동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자주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갖는 생각은 성도들이 갖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틀리다 (wrong)’고 말합니다. 목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같은 집안의 한 피를 받아 한 날 나온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지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맞고 안 맞고 가 없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리다는 말을 때론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때론 틀리다는 말로도 써먹

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는 더 성경적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뒷마당을 정소하다가 든 생각입니다. 한 주에 한 번은 개이를 치웁니다. 어떤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왜 여기에다가 불일을 보는 거야? 일정한 장소에 가서 보고, 지들이 잘 치우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개라는 동물은 쌀 줄만 알지 치울 줄을 모르는 짐승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예, 정리 정돈과 치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씹아 합니다. 그것도 아무 곳이나 하고 싶은 곳에 합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불일을 보고 나서 치우거나 덮거나하긴, 덮는 게도 있기는 있었습

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 짐승은 자기가 벌인 일을 수습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짐승이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을 반드시 자기가 처리합니다. 아무 말끔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반드시 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벌인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런데 처리를 잘 못합니다. 아니 왜 뒤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둘 중

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직 인간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00만도 못하다’고 비아냥댁니다.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들 때입니다. 철이 들어야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고, 우리가 벌인 여러 문제들을 잘 수습하면서 인간답고, 그리스도인답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갈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찌지요?

아름다운교회 제공

### 은혜의 샘물

## 믿음의 신비(2)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은근히 뽐내거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다가 놀라운 일을 겪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의 말보다는 조용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남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이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어릴 때 들은 설교 내용의 한 도막이 생각납니다.

그 누구 뒤에 대통령이 있다면 세상이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무게 뒤를 봐주시고 계신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깊이 느끼



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신비에 속합니다.

박동현(장신대 구약학)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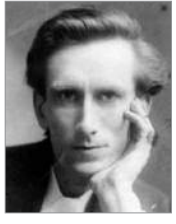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언제든지 쓰임 받기 위해

### 정신적 습관을 개발하라



오스워드 챔버스

일반적인 직업을 생각해 보자. "만일 당신이 교육이 부족하다면, 먼저 그 부족한 면을 깨닫고 그 부분을 보완하라. 당신에게 부족한 훈련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빼어나기 원하면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덜 집중하겠는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딤후 4:13)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주님께 더욱 귀히 쓰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지식을 추구할 것을 결심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한 도구로 준비되라.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잊지 말라. 모든 것보다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할' 필요를 잊지 말라.

### 끊임없이 최상을 목표로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딤후 4:16)

설교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임을 기억하라(고전 1:21).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고 최고의 이상적 설교를 만들라. 그러나 자신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이라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 절대로 설교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라. 꾸준히 노력하고 적용하면 처음에 어려웠던 것들도 언젠가 쉽게 하게 될 것이다.

지적으로 대충하려는 유혹을 피하라.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속이지 말라. 다음 구절을 잘못 적용하지 말라. "너희를 남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19-20)

영적인 일에 부주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 개인적인 은사에 집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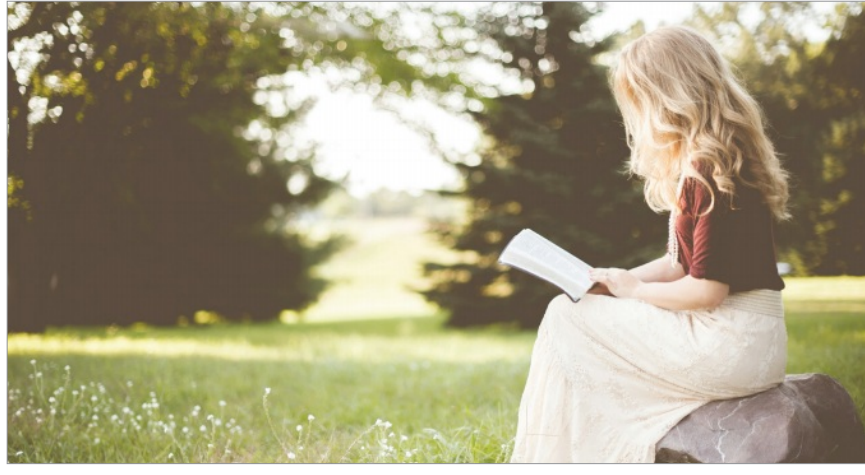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깝게 여기지 말라"(딤후 4:14)

주의 사역자로 제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대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라. 당신의 생각을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로 훈련시키라. 당신이 이해하고 받아 들인 모든 내용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능한 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언제나 당신의 생각과 입술에 가득 차게 하라. 가장 위대한 자원은 성령이시며 그분만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결국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설교뿐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다.

###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강권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딤후 6:11)

구원 및 죄사함의 체험을 한 이후에 신앙이 정체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항상 깨어 있게 하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하라. 당신의 마음이 소생되면 다시 잠



들지 않게 하라. 뇌는 쉬 필요가 없다. 단지 뇌가 하는 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능을 사용하는 일은 계속 뇌를 사용할 때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뇌가 최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녹슬지 않도록 항상 뇌를 청소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상태에 있게 하라.

###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라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 오스워드 챔버스

심대 시절에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방향한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는 에든버러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전공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 신실한 증인으로 헌신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순회설교자로(1906-10), 잉글랜드의 클라팰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수로서(1911-15), 그리고 이집트에서 YMCA 군목으로(1915-17) 활발하게 사역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솟아난 그의 메시지는 구원의 기쁨과 구령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었다. 주옥같은 메시지를 엮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비롯해 그의 많은 묵상과 설교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영적인 감화를 크게 끼치고 있다.]

# 다윗왕의 신약의 예배 8

초대교회는 다윗 장막의 예배의 표현인 이방인을 위한 강력한 선교적 충격을 경험하였다.



김영국 목사

사도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에 모인 사도들에게 설명한다.

15:13-19).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들에서 바로 이것을 예언하였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시 86:9)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도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도다" (시 72:11, 17)

왜 다윗이 구약보다 더 신약적인가 또는 하나의 이유를 본다. 즉 다윗은 선교적 정신을 갖고 있었다. 구약의 율법적 종교전통과 비교할 때 얼마나 신선하고 다른 태도인가!

다윗은 찬양과 경배 속에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에 관하여 노래하고 광범위하게 예언하였다(시 86:9, 117:1, 72:11, 17).

다윗의 이 선교 비전은 아직도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나라에 미치고 열방과 온 민족의 믿는 자들이 시편을 통하여 예배하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행

### ◆ 김영국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완돌 목사(그의 음악 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 찬양한답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한웅재



It Is Well With My Soul(내 평생에 가는 길)' 싱글앨범

## 피아니스트 Grace Jung, 'It Is Well With My Soul(내 평생에 가는 길)' 싱글앨범 발매

지난 연말 정규 앨범 'Piano on the Hill \_ Hymns Vol.5'를 발표했던 피아니스트 Grace Jung이 다른 연주 시리즈인 'The Hymns collection'의 세번째 싱글을 최근 발매했다.

'The Hymns collection \_ It Is Well

With My Soul(내 평생에 가는 길)'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주제로 한 녹턴 풍의 피아노 곡으로, 자유로운 선율과 폭넓은 화성 전개를 통해 깊이 있고 영감 있는 편곡의 클래식적인 접근이 돋보이는 찬양이다.

이 앨범은 서순정이 편곡을, 레코딩은 Bear Sound의 최윤영이 맡았다. 'The Hymns collection'은 피아니스트 Grace Jung의 피아노 연주 시리즈로 'Auld Lang Syne'(2022), 'Easter Prelude'(2023)를 발표한 바 있다. 인피니스 제공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문홍규 작가, 대작 중심으로 '봄의 향기展' 큰나무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한지 죽으로 캔버스 위에 평면 작업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문홍규 작가는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경기도 하남 소재의 큰나무갤러리(관장 김문경)에서 '봄의 향기展'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작품 앞에 선 문홍규 작가. ©최희 측 제공

한지 죽 바탕에 등장하는 사람, 동물, 식물, 풍경 등의 이미지는 한지로 형성된 굴곡진 화면에 입체감 있게 새겨져 두 성되고, 채색의 효과까지 극대화시켜 예술성을 높였다. 작가는 평소 생각했던 사

회적 이유, 어린 시절의 추억,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살면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 등 서정적 느낌의 작품을 주제로 제작하

고 있다. 해당 전시는 새 봄을 맞이하여 대작 위주로 전시를 기획 했으며, 따뜻한 색채로 완성된 그림으로 선정하여 관람객에게 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봄의 향기展'을 개최하고 있는 문홍규 작가는 "대작으로 그림을 완성하여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하게 어필하여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작품으로 봄의 상큼함을 전달하여 일상에 활력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화재와 출토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품화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전시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는 "한국의 종" 작품으로 국가 보물의 이미지를 만나 볼 수 있다.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국전작가회 회원, ADAGP(글로벌저작권자협회) 종신회원으로 미술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 CGN, 미취학 아동 위한 성경 학습 '고고바이블송' 개발

CGN이 미취학 아동들이 성경을 진속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바로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에서 만날 수 있는 '고고바이블송'이다.



고고바이블송 천지창조송 이미지 사진. ©CGN

'고고바이블송'은 천지창조부터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등 성경의 주요 사건을 노래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귀에 쏙쏙 외워지는 음원과 아이들이 외우기 쉬운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음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요를 제작한 이드레모즈가 만들었으며, 노래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애니메이션도 함께 제공된다.

CGN 양윤대 PD는 "딸이 공통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성경 내용을 담은 노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며 '고고바이블송'의 기획 의도를 전했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들이 성경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는 퐁당 시청 방법

△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다운로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고바이블'은 현재 다국어 버전으로도 제작 중이며,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도 제작될 예정이다. 이는 CGN의 해외지사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고고바이블송'은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CGN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들이 성경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는 퐁당 시청 방법  
△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다운로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고바이블'은 현재 다국어 버전으로도 제작 중이며,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정지동 기자

# '크리스천 커플' 송지은-박위, 10월 결혼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송지은이 자신의 연인인 유튜버 박위와 오는 10월 결혼한다고 밝혔다. 송지은과 박위는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예정이다. 송지은과 박위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각각의 SNS를 통해 연애 사실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함께할 것"이라며 박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박위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송지은을 만나 행복하다"며 그의 마음을 밝혔다.



송지은이 SNS를 통해 박위와의 연애 사실을 공개했다. ©송지은 SNS

11일 방송가에 따르면, 송지은은 10월 9일 서울 청담동 모처에서 박위와 함께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이며, 이는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연애를 인정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결혼이다. 예식은 가족과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이후 두 사람은 박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신앙 안에서 맺어진 서로의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길

송지은은 아이돌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활동한 후 현재는 배우로 활동 중이다. 유튜버인 박위는 2014년 낙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재활을 통해 유튜브에서 기적을 꿈꾸는 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한홍 목사(새로운 교회)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진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은혜의 시간 30 TV 설교/군포제일교회 권태민 목사	00 말씀 관동 이음 목사의 성경 묵상기 40 감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생명의 말씀-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새바람-김승욱 목사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삼승교회 김형석 목사 30 주만찬 5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 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비전설교 라이프저치 심성수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레알컴퍼니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3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위킹온다바이블] 성지탐방 50 CTS아침찬양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재근 장종현 총장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41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과 자연"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대리교회 최인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말씀노트	40 다큐 더 로드	0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 4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1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나의 심자가 : 세계의 심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00 2023 다니엘 기도회 5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오직 주님만 솔로 30 CBS 뉴스	0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11:00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생터 화광교회 윤희균 목사	00 은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레알컴퍼니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명교회 최대한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완 목사(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 설교/문도한교회의 장항희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말씀의 생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바꾸는 GOOD 리더의 도전 한세대 영광의 100주년을 향하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언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5:00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양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6:00	30 생명의 말씀-황용식 목사(신애교회)	00 말씀의 생터 성산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케빈 드영의 아브라함과 언약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성서학당:요한계시록 6강 - 송태근 목사 "늘 처음처럼" (본문 - 요한계시록 2:1-7)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리클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총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크리스천퀵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성지가 좋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록이 목사(그리스힐링교회) 30 말씀노트 40 부흥어게인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50 더 메시지	10 은누리 미래 & 가족 축제 40 퐁당 비디오가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 설교/남양주한마음교회 남상진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저녁	19:00	30 광림의 시간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30 이스라엘로 (오심소)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00 말씀의 창 - 인천제일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다큐 더 로드 50 GOODTV 뉴스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41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과 자연" 50 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다시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	10 이단사이렌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잊위의 서재 시즌2 5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10 새롭게 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00 주만찬 20 잘 믿고 잘 사는 법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리버티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감병삼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숲 50 살롱 살롱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00 하나님의 음성 30 2023 다니엘기도회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00 [말씀] 이용준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교회)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선교는 지금 2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물랐던 이야기 성지편 40 감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00 GOODTV 다큐스페셜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류웅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00 율포원	00 만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진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열왕기서 13강 - 김기서 목사 "지파들의 반란" (본문 - 왕상 11:41-12:24)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 5년 후 100% 반환 받자 한화리조트 입회금 전액 반환 회원권 출시



HANWHA RESORTS



한화리조트 설악 소라노



한화리조트 대천



한화리조트 제주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한화리조트 해운대



한화리조트 경주



한화리조트 용인



한화리조트 평창

### 국내 외 체인

콘도 거제 벨버디어 / 설악 소라노 / 설악 별관 / 해운대 / 제주 / 경주 / 용인 베잔송 / 평창 / 산정호수 안시 / 대천 파로스  
호텔 THE PLAZA / 여수 벨메르 / 브리드호텔 양양 / 마티에 오시리아 골프장 플라자CC 용인 / 설악 / 제주  
테마파크 설악 워터피아 / 뽀로로 아쿠아빌리지 / 63ART(미술관/전망대)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제주 / 여수 / 일산 / 63 / 광고

특·별·회·원·모·집

1800.5441